高大校友會報

〈1907年 3月 15日 創刊〉

校友會指標 : ① 參與하는 校友會 ② 奉仕하는 校友會 ③ 矜持를 갖는 校友會 ④ 母校를 돕는 校友會

發行人 鄭 世 永
編輯人 尹 百 鉉
印刷人 張 在 國
編輯局長 朴 鍾 烈

發行所 : (財)高大校友奬學會
서울特別市城北區安岩洞5街1
〒136-701
☎事務處:924-2591~5
編輯局:924-2596~7
FAX: 924-2598

銀行지로番號 7500011
對替計座 010041-31-512343

1996年 6月 5日(水曜日) The Korea University Alumni News (1970.7.11登錄番號(서) 라-27) 【月刊】第311號

新교우회관 준공, 교우회 安岩時代 개막



「'96 高大人의 날, 교우회관 준공식 및 국회의원 당선교우 축하연」 盛況

교우회 안암시대 개막을 알리는 「교우회관 준공식」과 아울러 「'96 고대인의 날」행사가 성대하게 개최됐다. 제15대 국회의원 당선교우 85명에 대한 축하연을 겸하여 5월30일(목) 오후6시30분 모교 구내에 신축된 新교우회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1천여명의 교우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서는 「'96 자랑스러운 고대인」으로 선정된 金一斗전교우회장과 崔平和모교 명예교수가 영예의 상패와 기념메달을 수여받았다. 이날 행사에서 鄭世永교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우회관 준공은 全고대인의 기쁨이요, 교우회의 찬란한 미래를 약속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16만 교우는 재학생들과 함께 선후배의 정을 나누며 우리 모교가 세계적인 명문으로 성장하는 데 熱과 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모교 웅비의 도약대가 될 新교우회관은 94년 9월 착공이래 20여개월만에 완공됐으며, 지하1층 지상5층 2천4백여평의 웅장한 초현대식 석조건물로 교우회 사무처, 모교 행정부서가 입주하게되며 각종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교우들은 물론 재학생들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관련기사 3, 7, 10, 11면〉 〈사진 : 沈相賢 기자〉

◈ 主要內容 ◈

3면 : 「'96 高大人의 날, 교우회관 준공식」
4면 : 국회의원 당선교우 축하연
5면 : 고대의대의 날
6면 : 母校를 빛낸 교우들(16) - 金成坤교우
7면 : 초대석(鄭世永교우회장)/자명고(郭廣澤교우)
8면 : 高大發展硏究委員會 3차 회의
9면 : 「바른교육 큰사람 만들기」운동 소식
10~11면 : 「'96 高大人의 날, 교우회관 준공식 및 국회의원 당선교우 축하연」畵報
12~13면 : 교우포스트
14면 : 석탑소식
15면 : 출판가 화제의 고대인

교우회 사무처 및 편집국 이전 (3면)



킴스클럽이란?

1. 구매가격 절감에 의한 판매가격파괴
   ①창고형 매장운영 ②대량구매에 의한 구매가격 절감
   ③생산지 직거래를 통한 유통마진 절감 ④현금판매
   ⑤무배달 ⑥무창고 ⑦무포장 ⑧무광고 ⑨무인테리어
   ⑩무파견사원 등
2. 가입회원들께만 판매혜택을 부여하는 회원제 창고형 가격파괴 신업태.
3. 단 한번으로도 연회비 이상의 이익가능

취급상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공산비식품, TV, VTR, 냉장고, 세탁기, 전화기, 의류, 양말, 스타킹, 화장품, 가방, 가정용품, 주방용품, 침구수예용품, 스포츠용품, 문화용품, 작수동완구, 블럭완구, 유아완구, 과학교재, 게임기 등 3천여종의 상품을 판매합니다.



킴스클럽 회원가입 안내		
	골 드 카 드	비즈니스카드
가입자격	국내거주 내·외국인(19세이상)	법인,단체,개인,사업자,관공서,의료기관 요식업,수퍼,기타(당사소정기업기준에의거)
가입회비	연회비만3만원(가족1인에 한하여 1만원추가)	연회비 3만원 (가족회원 없음)
가입방법	가입신청서 기재(본사양식) 사진 1매(즉석 무료 촬영)	가입신청서 기재(본사양식) 사업자 등록증 제시
카드발급 장소 (11개점 공통사용)	서울 : 뉴코아 신관앞 킴스클럽 정문(문의전화 : 02)530-5550~5) 과천 : 뉴코아 과천백화점 1층 남문(문의전화 : 02)509-5900~5) 수원 : 킴스클럽 수원점 1층(문의전화 : 0331)220-7080~2) 분당 : 하이웨이 분당점 1층(문의전화 : 0342)780-3800~2) 인천 : 인천구월백화점 서문앞(문의전화 : 032)430-5553~5) 인천뉴코아타운 1층(문의전화 : 032)763-5000) 뉴코아연수점1층 후문(문의전화 : 032)810-5126) 평촌 : 평촌백화점 주차빌딩 1층(문의전화 : 0343)80-6363) 평택 : 뉴코아 평택백화점 11층(문의전화 : 0333)50-6800) 부천 : 뉴코아 중동백화점1층(문의전화 : 032)320-5800~1) 일산 : 뉴코아 일산백화점 1층(문의전화 : 0344)900-5800~2)	

점포망안내	
서울본점	: 뉴코아 신관앞 주차빌딩 지하1층,지상1층 (강남고속터미널 앞)
과 천 점	: 뉴코아 과천백화점 지하1층, 지상5, 8층 (정부 제2청사 앞)
수 원 점	: 킴스클럽 수원점 지하1층~지상8층(수원시청앞)
분 당 점	: 하이웨이 분당점 지하2층,지상6, 7층(분당 야탑역)
인천구월점	: 하이웨이 인천구월점 지상8, 9, 11층 (인천문예회관 옆)
인천연수점	: 뉴코아연수점 지상1, 2층(연수동 시대아파트앞)
인 천 점	: 인천뉴코아타운 지하1층(동인천역 앞)
평 촌 점	: 평택백화점 주차빌딩1층(범계역 앞)
평 택 점	: 뉴코아 평택백화점 지상8, 9층(평택시청 앞)
부천중동점	: 뉴코아 중동백화점 지하2층, 지상8, 9층(송내역앞)
일 산 점	: 뉴코아 일산백화점 지하2층, 지상7, 8층(마두역앞)

KIM'S CLUB

會長 金 義 徹 (經營59回)

교우회 90年史 새 이정표 "교우회관 신축"

5월 30일, 「'96 고대인의 날」 및 「교우회관 준공식」 대성황

1천여 교우 참석, 현판 및 기념조형물 제막

「96 자랑스러운 고대인 賞」 시상 등 다양한 행사 펼쳐

「교우회 안암시대」가 드디어 개막됐다. <관련기사 7, 10, 11면>

모교 개교 아흔하돌을 자축하고 16만 전고대교우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건립된 교우회관 준공식을 겸하여 열린 「'96 고대인의 날 및 교우회관 준공식」이 지난 5월30일(목) 오후 6시30분 新교우회관(고려대 사범대 뒤 소재)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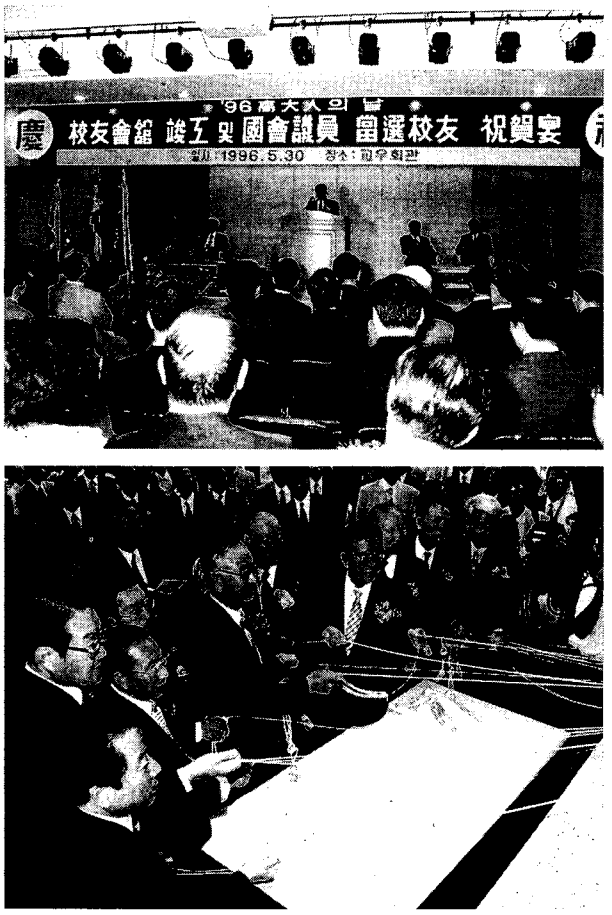
제15대 국회의원 당선 교우 85명(학부 및 대학원)에 대한 축하연을 겸하여 열린 이날 행사는 총 3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2천4백여평의 웅장한 석조건물의 위용을 드러낸 교우회관의 현판제막을 시작으로 진행된 1부 행사는 교우회관 준공식을 중심으로 모교 姜熙德(사범대 미술교육과)교수의 기념조형물 제막, 테이프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鄭世永교우회장을 비롯, 洪一植모교총장, 蔡汶植재단이사장, 李哲承교우회고문, 金一斗前교우회장, 柳時東월례강좌운영위원장, 李重載, 韓英洙, 李世基, 辛卿植의원, 李正雨법대교우회장, 孫桂煥서울신문사장, 朴成基경영대학원교우회장등이 참석한 테이프커팅에 이어 모교 오탁번(62영분)교수가 지은 준공기가 제막됐다.

장소를 대강당으로 옮겨 MBC아나운서인 姜載馨(79영분) 黃善淑(80생물)교우의 사회로 진행된 2부 기념식에서는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尹百鉉사무총장의 경과보고, 鄭世永교우회장과 蔡汶植재단이사장간의 기부채납증서 및 영구무상사용증서가 교환됐다.

이어 교우회관 준공에 기여한 현대건설측을 대표해 朴찬규현대건설 부사장에게 감사패가 증정됐으며, 조형물제작을 맡은 姜熙德(미교과)교수와 준공기를 쓴 오탁번(61영분)교수에게 각각 감사패가 전달됐다.



◇ 「'96 고대인의 날」 및 「교우회관 준공식」 기념식이 1천여명의 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上) 교우회관 현판을 제막하고 있는 교우. (下)

교우 총 85명 제15대 국회진출

교우회, 당선교우에게 축하패 전달

제15대 국회의원 교우가 총85명으로 최종 확인됐다.

지난 4월11일 총선을 통해 선출된 총2백99명 중 28.4%에 해당하는 85명이 고대 교우로 밝혀졌으며, 이중 학부 출신은 39명이다.

本報가 지난달 집계한 '77명(本報 310호 10~11면 참조)에서 8명이 늘어나 총 85명으로 최종 집계된 국회의원교우를 정당별로 정리하면, 신한국당 40명, 국민회의 28명, 자유민주연합 11명, 민주당 3명, 무소속 3명이다.

교우회에서 주최하는 15대 국회의원 당선교우에 대한 축하연은 지난 5월30일 열린 「'96 고대인의 날 교우회관 준공식」과 함께 치뤄져 행사에 참석한 교우들의 뜨거운 축하를 받았다.

축하연에는 李重載(39경상)교우를 비롯하여 24명의 국회의원 교우가 참석, 鄭世永교우회장과 洪一植모교총장으로부터 당선 축하패와 선물을 증정받았다.

새로 추가 확인된 15대 국회의원 교우는 다음과 같다. (졸업회수, 소속정당)

△姜聲才(노동대학원 1기·신한국당) △金元吉(노동대학원1기·국민회의) △金正洙(자연자원대학원4기·신한국당) △金弘一(노동대학원1기·국민회의) △朴尙奎(국제대학원 4기·국민회의) △朴熽太(국제대학원 4기·신한국당) △鄭漢溶(노동대학원3기·국민회의) △趙永載(최경·자민련)

교우회관 건립기금 5월중 4억여원 입금

새 교우회관 건립기금이 5월 31일 현재 78억 6천 2백 58만 4천 6백원이 입금됐다.

총 입금액 중 5월중 입금된 금액은 3억 9천 9백 41만원으로 집계됐으며, 한화그룹과 진로그룹에서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입금했다.

경영대학원 교우회에서도 9천 8백 23만원을 입금했으며, 교우회 부회장인 李相弼(56영분)교우가 1백만원을 입금했다.

이외에도 이경상(50정치)교우등 7명의 교우가 3만원을 입금, 식지않는 교우들의 참여도를 반영했다.

本報에서는 교우회관이 이미 준공되었지만 기금건립기금이 입금되는대로 회보에 그 명단을 게재할 예정이다. <5월 중 입금교우 명단 4면>

제15대 국회의원 교우 85명(학부 및 대학원)에 대한 축하패가 전달됐는데 李重載의원이 대표로 축하패를 전달받은 뒤, 참석한 모든 국회의원 교우에게 각각 축하패와 기념품이 전달됐다.

본격적으로 고대인의 날 행사가 진행되어 지난해 모교발분촉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李平佑(62생물)교우에게 공로패가 전달됐으며, 3대 가족상 수상가족인 張致順(62영분)교우가족과 朴永錫(52사학)교우가족을 비롯한 4명의 5인 이상 교우가족에게 고대 가족상패가 수여됐다.

이외에도 모범지부(마닐라지부, 남양주·구리·미금지부)와 분회(하나은행·현대증권)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이어 「'96 자랑스런 고대인상」 시상식이 진행돼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金一斗(변호사·前교우회장) 崔平和(고대 명예교수)교우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자랑스런 고대인상패와 순금으로 제작된 기념메달을 받은 두 교우는 축하꽃다발과 축하인사를 받았으며, 金一斗교우는 감사인사를 통해 「자유·정의·진리와 지성·야성은 고대정신이다. 이런 고대정신을 가진 고대인들은 고대출신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자랑이다. 이제 전 고대인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일해야한다」며 고대인의 긍지를 한껏 고양시켰다.

이날 행사에는 모교 재학생을 대표해 이종철(정외 4)총학생회장과 윤호준(식공 4)부총학생회장이 나와 교우회관 준공과 고대인의 날 행사를 갖는 선배교우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해 선후배간의 끈끈한 정을 확인시켰다.

2부행사를 마친 교우들은 만찬장으로 자리를 옮겨 교우회관 준공과 고대인의 날을 축하하는 고대인의 장을 연출했다.

신교우회관은 응집력 있는 고대 교우들의 자발적인 성금 80여억원과 모교의 협조 속에 지난 94년 9월29일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1년8개월여만에 결실을 보게됐으며, 모교 고려중앙학원에 기부채납하고 영구무상사용하게 된다.

신교우회관은 16만 고대교우는 물론, 재학생들이 공동사용하게 되며 각종 학술행사 및 기념식을 할 수 있는 대규모 강당, 세미나실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식당, 은행등 편의시설이 입주하게 된다.

이 전 안 내

신교우회관 준공에 따라 종로 교우회관에 있던 교우회 사무처와 교우회보 편집국이 이전하게 됩니다. 6월15일부터 신교우회관에서 업무를 재개하게되는 교우회는 16만 교우들의 정성과 뜻을 모아 모교의 발전과 교우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단장된 교우회관에 입주하는 교우회의 변경주소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우회 사무처
주소 :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려대학교內 고대 교우회관 5층
전화 : (02)924-2591~5 FAX : (02)924-2590

▲ 교우회보 편집국
주소 :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려대학교內 고대 교우회관 5층
전화 : (02)924-2596~7 FAX : (02)924-2598

국회의원 당선교우 축하연 잇따라

지부·직능별 교우단체 중심으로개최
법대교우회, 축하모임후 발전기금 전달

15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당선교우에 대한 축하연이 잇따라 베풀어지고 있다.

법대 교우회(회장=李正雨·48법학)에서는 지난 5월10일(금) 오후6시30분 조선호텔2층 오키드룸에서 「국회의원 당선자 축하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법대출신 국회의원 당선교우들에게 축하메달이 전달됐으며, 법대교우들의 뜨거운 축하를 받았다. 법대출신 국회의원 교우는 李相洙(68법학) 林采正(57법학) 洪準杓(70행정) 南宮鎭(58법학) 李澤錫(56법학) 李聖浩(55행정) 李海龜(54행정) 趙誠俊(66법학) 宋勳錫(65행정) 金永俊(57행정) 丁世均(68법학) 金珍培(51법학) 金忠兆(58법학) 金和男(58행정) 韓灝鮮(52행정) 등이다.

법대교우회와 법대발전후원회에서는 이자리에서 모교발전기금으로 2천만원을 조성해 金日秀법대학장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鄭世永회장을 비롯, 金起秀검찰총장, 李熙鳳명예교수, 孫柱煥서울신문사장, 金斗鉉 언론중재위원장, 金一斗前교우회장, 張德鎭前교우회장, 許鼎九삼양통상회장, 鄭成太前국회부의장, 金振雄전모교총장, 朴鍾奭삼희투자금융회장, 金良玄삼원산업회장, 李種南前법부부장관, 李龍男한보사장, 朴鍾大평화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武友會(회장=金範明·58정외)에서도 지난 5월27일(월) 오후7시 모교 인촌기념관에서 「총선 당선자 축하연」을 개최했다. 이자리에는 무우회원 출신 당선자인 李國憲(54법학) 朴明煥(56정외) 金範明(58정외) 具天書(70경제) 薛勳(사학74학번) 교우와 무우회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성남지부(회장=李聖一·58경상)에서도 지난 5월21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趙誠俊, 李允洙교우에게 당선 축하패를 전달하고 축하연을 베풀었으며, 경영대학원 교우회(회장=朴成喆·39경영)에서도 오는 6월8일(토) 열리는 「친교의 장」행사에서 경영대학원 교우 국회의원에 대한 축하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經濟人會, 다양한 활동 펼쳐
세미나·모교와 간담회등 가져

고대경제인회(회장=趙植元·48법학)가 지난 3월 정기총회 이후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5월28일(화)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제大 朴康壽(55국문) 총장을 초청해 조찬세미나를 개최했으며, 모교와의 간담회를 통해 모교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찬세미나는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경제발전과 제15대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朴총장의 강연을 실시했다.

한편, 경제인회 趙植元회장과 부회장 감사 등은 5월14일 인촌기념관에서 모교 洪一植총장, 부총장, 대외협력처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모교와의 유대강화를 위한 현안문제에 대해 진지한 의견을 교환했다.

65동기회 학술대회 6월21일

65동기회(회장=卞元錫)에서는 오는 6월21일(금) 오후5시부터 「96년도 동기의 날 기념 학술대회 및 축하연」을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홀(22층)에서 개최한다.

동기회 결성 10주년을 맞아 기획된 이번 행사의 주제는 「OECD에의 가입 선진국 경제로의 도약인가」이며, 발표자는 모교 오정훈(경제학과)교수이다. 지정토론자는 강병호(한양대교수)、길용섭(KBS뉴스라인 앵커)、안병연(재경원 국민생활국장) 교우이다.

이날 행사의 사회는 모교 이기수(법학과)교수가 맡게되며, 자세한 문의는 65동기회 사무실(501-1965)로 하면된다.

회관건립 기금 입금현황

96. 5. 31 현재 78억6천2백58만4천6백원

▲기 적 립 금 74억6천3백17만4천6백원

▲ 2억원
한화그룹

▲ 1억원
진로그룹

▲ 9천8백23만원
경영대학원교우회

▲ 1백만원
이상필(56영문)

▲ 3만원
이경상(50정치) 김재한(63통계)
유준열(79물리) 장태환(9교석)
김동선(23교석) 조용희(10최경)
박종훈(89환공)

※ 그동안 교우회관 건립기금 모금에 협조해 주신 16만 교우여러분과 사회 각계 유지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백만원 이상 입금하신 교우님의 명단은 기념조형물 좌대에 새겨져 있습니다.

제3회 고려경영포럼 개최
洪一植총장 강연, 金在哲교우 포럼대상 수상

경영대학과 경영대학원、경영대언론인회가 공동으로 창설한 「고려경영포럼(공동대표=申守植경영대학원장、池清경영대학원장)」의 제3회 행사가 지난 5월20일(수) 오전 7시30분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洪一植모교총장이 주제 강연이 실시했으며, 제3회 고려경영포럼대상은 金在哲(11경영·동원그룹 회장)교우가 수상했다.

「고려경영포럼」은 기업경영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의 한국경제방향을 모색하여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포럼운영은 격월로 전문학자와 저명인사들을 대상으로 조찬강연을 마련하고 있다. 포럼참가범위는 「고려경영포럼」 취지에 동참하는 교우 및 교수이다.

第10期 國際大學院 新入生 募集

1. 募集課程
1) 碩士課程 및 硏究課程
가. 韓國學科(晝間, 外國人 對象 * 英語로 講義함)
나. 地域硏究學科(夜間, 韓國人 對象)
北美·유럽專攻/日本專攻/中國專攻
러시아·東유럽專攻/東南아시아專攻 各 專攻別 若干名
2) 最高國際管理課程(夜間,1學期課程) : 60名 內外
○ 企業體 및 國營企業體 任員級 以上
○ 公共機關 및 中央官署 高位職 責任者
○ 各軍의 將星級 將校
○ 國會議員
○ 醫師, 辯護士
○ 女性經濟人 및 社會 各界의 女性指導者

2. 願書接受
가. 碩士, 硏究課程 : 1996. 6. 3(月) - 1996. 6. 12(水)
나. 最高國際管理課程 : 1996. 6. 3(月) - 1996. 7. 18(木)
3. 銓衡日時
가. 碩士, 硏究課程 : 1996. 6. 15(土) 午後 2時
나. 最高國際管理課程 : 1996. 7. 20(土) 午後 2時
4. 銓衡方法
가. 碩士課程 : 韓國學科 - 書類銓衡 및 面接
地域硏究學科 - 英語, 一般論文, 面接
나. 硏究, 最高國際管理課程 : 書類銓衡 및 面接
5. 願書接受處:本 大學院 敎學課(仁村紀念館 208號)
6. 其他 仔細한 事項은 本 大學院 敎學課(920-1962)로 問議바람
* 本校 校友여러분의 各 敎育課程 志願을 특히 歡迎합니다

高麗大學校 國際大學院

醫大人 잔치 「고대 의대의 날」 성황

모교 녹지캠퍼스…교우 및 가족 4백여명 참석



◇「제16회 고대의대의 날」행사가 4백여 교우가족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의과대학 교우회(회장=宋秀植·21의학)에서는 지난 5월19일(일) 모교 의과대학 녹지캠퍼스 노천극장에서 「제16회 고대 의대의 날」행사를 개최했다.

대회장인 李金熙(11의학)교우를 비롯, 尹百鉉 교우회 사무총장, 丘秉參 모교의무부총장, 全容赫 의대학장, 金舜謙 구로병원장, 조재흥 안산병원장 등 4백여명의 의대교우와 교우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오전, 오후 행사로 나뉘어 체육행사와 각종 공연행사가 펼쳐졌다.

오전10시부터 진행된 오전행사에서는 테니스 대회를 비롯, 다트경기, 제기차기, 고리던지기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으며, 주최측에서 준비한 점심식사와 바베큐파티가 이어졌다. 오후행사를 마무리한 후 역대교우회장단과 현집행부, 그리고 동기회 및 지부에서 찬조한 90여점의 경품추첨이 진행됐다.

한편, 테니스경기에서는 金奭濟(74의한) 鄭容燕(74의한)교우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성남지부 신임회장 金麗運교우

김천지부 신임회장 朴瑾夏교우

성남지부와 김천지부 회장이 새로 선출됐다.

지난 5월21일(화) 열린 성남지부 정기총회에서 현회장 李聖一(경영)교우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회장에 金麗運(52경제)교우를 선출했다. 총무에는 柳東善(72산공)교우가 선임됐으며, 전임회장단에 대한 공로패가 전달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이 지역 국회의원 당선교우인 趙誠俊, 李允洙 교우에게 축하패 전달됐다. 연락처(0342-732-0952 유동선총무)

또한, 김천지부에서는 지난 2월중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신임회장에 朴瑾夏(54농화)교우를 선출했다. 모교 신입생 초청 만찬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천지부는 정기총회를 통해 朴교우를 회장에 선출하는 한편, 부회장에 金大鳳(64경제) 金榮柱(경연31)교우를 각각 선출했다. 총무에는 申宙燮(73농화)교우가 선임됐다.

경대원 교우회, 「임원친교의 장」개최

6월8일, 우이동 그린파크

경영대학원 교우회(회장=朴成喆신원그룹회장·39경연)는 오는 6월8일(토) 오후1시 우이동소재 그린파크호텔 「송원가든」에서 「임원친교의 장」을 개최한다.

경영대학원 고문, 자문위원, 회장단, 상임이사, 이사, 간사장, 집행간사 및 15대 국회의원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하게될 이날 행사는 제24대 집행부 출범에 따라 임원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교우 상호간의 우의를 다지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15대 총선 당선교우에 대한 축하패가 전달될 예정이며, 경품추첨과 여흥시간이 이어진다. 이날 행사는 우천불구하고 진행되며, 참가비는 2만원이다.

한편, 지난 4월23일에는 롯데호텔에서 회장단과 각기별 동기회장 및 집행간사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이사회의를 오찬으로 개최하여 6월8일로 계획된 임원 친교의 場과 회보 발행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신임집행부 구성에 따라 각자 소개의 시간을 가졌다.

보훈처분회
신임회장 權律政교우

국가보훈처분회는 새 분회장에 權律政(78사회·서기관)교우를 선출했다.

남가주지부, 재정비 사업 "박차"

지부산하 골프클럽도 활성화

남가주지부(회장=田穫耕·60법학)가 90년대초 LA폭동이후 어려움을 헤치고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어 LA지역 교민들로 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

LA폭동 이후 경제악화에 따라 역이민현상까지 빚어질 정도로 어려움에 처했던 상황 속에서도 고대인의 패기와 열정으로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는 남가주지부는 지난해 12월 총회의 인준을 거쳐 신임 집행부를 구성했으며, 2월에는 정기이사회를 열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교우회보 축소판을 발간하여 지역 교우들간의 유대강화와 상호부조를 꾀하고 있으며, 특히 지부산하에 있는 골프클럽(회장=李圭昌·53정외)을 활성화시켜 지역교민들간의 유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91년 결성된 골프클럽은 제2회 대회를 지난 4월6일 개최했으며, 교우회원들의 성원으로 홀인원상등 푸짐한 상품이 선사되기도 했다. 대회 트로피는 洪一植모교총장이 기증한 트로피를 비롯, 여러 트로피가 있으며, 94·95년에는 정기고연골프대회를 개최하여 2연승을 거두기도 했다.

第132回 月例講座

▲**일시** : 6월28일(금) 오전 11:30
▲**장소** : 안암 신교우회관 강당(지하1층)
▲**연사** : 張元鎬(54정치·미주리대 교수)교우
▲**연제** : 멀티미디어시대의 언론

※ 강연후 오찬을 대접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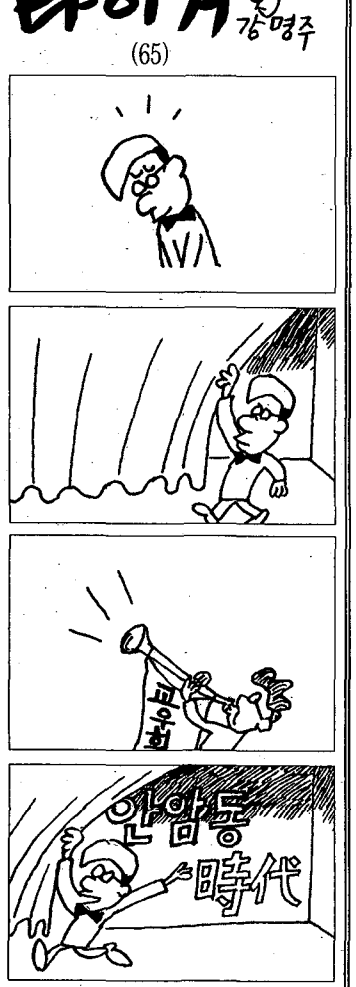
主催: 月例講座 運營委員會
後援 : 高麗大學校 校友會

高麗大學校 經營大學院 校友會 第24代會 任員公告

- 顧　　問: 金仁得 李鐘元 朴圓彬 文昌鐸 崔鉉烈 李萬福 李壯均 李千培 金在哲 朴文奎 李相淑 尹　瓘 柳正得 金聖勳 鄭祥鳳 趙基龍 金溢昌 韓晳畯 朴基億 趙乃璧
- 常任顧問: 嚴相皓(33회)
- 諮問委員: 蔡熙旭 宋在河 羅公成 李英哲 李弼鎔 金昇河 尹浩憲 元鍾南 金鍾哲 金澤勳 梁元伯 安基錫 池海鏡 李丙錫 張東玉 李鍾石 李根模
- 會　　長: 朴成喆(39회)
- 副 會 長: 孫義光(4회) 金昞源(6회) 陳瑨炯(석사6회) 姜鳳求(12회) 石元俊(17회) 金晟台(18회) 金永國(21회) 金光石(22회) 林鍵雨(25회) 劉永京(27회) 金奎台(28회) 韓圭萬(33회) 洪東基(34회) 李植宰(35회) 安有洙(37회) 林　薰(40회) 林福順(43회) 李喜春(47회) 金小南(47회) 邊以昌(52회) 李六郎(55회) 沈龍燮(59회) 曺小棹(60회) 金浩石(62회)
- 監　　事: 李根模(2회) 梁元伯(14회) 鄭時勳(석사 15회) — 回別順 —
- 事務處長: 權容植(12회)
- 執行幹事: 李振徽(8회) 林炫圻(17회) 朴禎錫(25회) 具悳會(31회) 韓政熙(석사 40회) 金容浩(42회) 李一植(47회) 李泌周(52회) 朴商鏡(55회)

1996. 6. 5.

高麗大學校 經營大學院 校友會
會長 朴 成 喆



계경 계약경제일보 (02) 707-1919

신 12는로고에지화

특별기획

모교를 빛낸 교우들 ⑯

省谷 金成坤교우



所信과 志操로 政·財·言論界서 맹활약한 巨木

母校 서관시계탑의 주인공 … 後進養成에 남다른 애정

省谷 金成坤(1913-1975)교우는 한국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우직하고 강인한 성품과 「일하며 남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신념으로 政界, 財界, 言論界등 여러분야에서 맹활약한 인물로 현대한국의 산파 중 一人이다.

그는 「소탈하고 통이 큰 그릇」이라 평가받으며 50년대는 경제계에서, 60년대는 정계에서, 70년대는 다시 재계에서 凡人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으며, 특히 70년 11월부터 교우회장을 맡아 永眠할때까지 고대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항일스트라이크로 대구고보 재학 중 퇴학

金교우는 1913년 대구 달성군에서 태어났다. 1928년 서울로 유학, 휘문고보에 입학하여 재학중이었던 그는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던 1931년 고향의 명문이었던 대구고보로 편입한다.

이 당시 한국학생들은 광주학생운동을 기점으로 항일감정이 극에 달해있었고, 金교우가 다니던 대구고보에서도 일본인 교사와 학생들의 편파적인 작태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어 가끔씩 시험거부같은 사보타지가 벌어지곤 했다. 이때 운동(유도와 축구)의 달인이었고 힘이 장사였던 그는 수업거부등 항일스트라이크의 주동이 되었고, 그 길로 퇴학을 당하고 말았다.

그후 金교우는 우여곡절 끝에 보성고보로 편입하고, 1934년 보성전문 상과에 입학한다. 보전 재학 당시 그는 유도선수로 활약하면서 德育部長을 맡을 정도로 학생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특히 延專生들과의 막걸리 마시기 내기 사건은 후일 普專生은 물론, 서울시민의 입에 자주 膾炙될 정도로 그는 당시 보전생의 기질을 대표하는 학생중 一人이였다.

자수성가로 순수민족자본 육성

37년 모교 상과를 졸업한 金교우는 잠시 금융계에 몸담기도 하지만 곧 독립기업가가 될 것을 결심하고 47년 자수성가로 금성방직을 설립하여 순수민족자본육성과 대실업가의 기틀을 다진다. 6.25사변으로 그의 기업은 잿더미가 되고 만다. 하지만 불굴의 의지로 다시 기업을 일으켜 대구에서 염색공장을 세워 기틀을 다지고 태평방직을 설립하기에 이르른다.

이후 그는 금성산업주식회사 설립(54년), 금성방직 재건(54년), 고려화재인수(59년), 쌍용양회설립(62년), 쌍용해운 설립(1967년), 대한양회 인수합병(1975년)등 수없이 많은 경제활동을 통해 현재 재계순위 6위에 오른 쌍용그룹의 토대를 마련한다.

특히 그는 단순히 기업창업과 성장에만 힘쓴 것이 아니라 건전한 경제문화와 이윤의 사회환원에도 힘을 기울여 많은 사회사업을 펼치기도 했다.

종군기자로 언론계와 인연

6.25 전란의 와중에서 金교우는 돈벌이에만 급급하지 않고 당시 UP통신과 계약을 맺고 있던 대한통신에 취체역으로 취임하고, 51년10월에는 UN군 종군기자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그가 평생동안 언론에 관심을 갖고 열성을 바친 것은 민족 상잔의 비극속에서 겪어야 했던 약소민족의 비애에서 출발한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업이 궤도가 오르자 그가 힘쓴 분야도 언론계였다. 53년 동양통신사 사장에 취임한 그는 54년 연합신문사 사장에 취임하고 언론에서 그의 뜻을 펼치기 시작한다. 특히 지금까지 그의 업적으로 크게 평가받고 있는 성곡언론문화재단의 설립은 언론에 대한 그의 남다른 업적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각언론단체들의 언론문화 창달을 보조하고 수많은 중견 신문기자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어 미국의 콜롬비아, 하바드, 미주리 대학과 일본 동경대학에 유학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언론재교육에 힘쓴 것은 그 당시 金교우가 아니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언론에 대한 노력은 국제무대에서도 빛을 발해 개인자격으로 국제신문인협회(IPI)에서 정회원이 되었고, 69년에는 이사장까지 맡게 되었다.

어려운 매듭푸는 정치인

金교우가 정계에 입문한 것은 58년 고향인 경북 달성에서 4대 민의원에 당선되면서 부터였다. 이후 6, 7, 8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그는 국회재정경제위원장, 공화당재정위원장, 공화당중앙위원회 회장등 국회와 당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정계에서 「SK」로 통하던 그는 71년 총선에서 공화당 일부와 대립, 71년 10.2파동으로 공화당을 탈당하고 정계에서 은퇴했다. 국회의원 당시 그는 항상 「국회의원은 백수건달이 하는 것」이라며 조금은 냉소적이고 자조적인 태도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다름아닌 당시 정치적 상황에서 그가 담당했던 역할에 대한 자괴감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였던지 그는 정치 일선보다는 2선에서 항상 막후실력자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때 해결사 노릇을 한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

모교 서관 시계탑의 주인공

그의 모교 사랑은 유별날 정도로 강했다. 고대인들은 그가 교우회장을 역임한 것만을 기억하고 있지만, 재학 당시 서관 시계탑에서 정오만되면 울려퍼지며 고대인의 민족정기를 일깨웠던 「녹두가」의 주인공이 金교우란 것을 기억하는 교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모교사랑은 후대로 이어져 87년 고장난 시계탑을 그의 아들 金錫元(특별회원)교우가 수리해 어린 후배들도 이 음악을 들으며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게 한 것은 두고두고 기억될 고대사랑의 모범이다.

金교우는 인촌동상 건립때도 거금을 쾌척해 남다른 모교애를 보였고, 각종 모교행사에 금전적인 도움은 물론 열과 성을 다해 몸소 참석하는 등 교우들의 귀감이 되었다. 특히 교우회관 건립 추진이 그에게서 처음 제기되었다고 하니 그의 교우사랑은 새삼 거론할바가 안되는 것이다.

그의 후학양성은 고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성곡학술문화재단을 설립해 교수들의 연구를 도왔고, 국민대학을 인수해 대학교육에도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기도 했다.

그가 75년 모교 졸업식을 앞두고 교우회장 축사를 준비 중 고혈압으로 비운을 맞았을 때 京鄕各地의 국민들은 悲報를 접하고 침통해 했으며, 특히 그에게 도움을 받아 학업을 계속했던 20여명의 학생은 그의 빈소를 찾아 통곡을 했다고 하니 그의 한평생은 고대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朴鶴來기자〉

고경산악회 제14대회 임원공고

⊙ 명예고문 : 지 청, 박기억, 엄상호
⊙ 고 문 : 권혁용, 박부남, 지해경, 이영철, 양명선, 김진용, 석원준
⊙ 지도위원 : 이근모(2회), 이민우(2회), 윤호헌(12회), 권용식(12회), 안기석(15회), 김종철(16회), 이병석(17회), 유영경(27회), 홍동기(34회), 임훈(40회), 임복순(43회), 박선오(47회), 김기호(49회), 이일표(53회), 이육랑(55회), 심용섭(59회)
⊙ 전문위원 : 양원백, 고석철, 장동옥, 한원재, 정복용, 장만선
⊙ 자문위원 : 김영구(1회), 성병국(2회), 정대수(7회), 정갑영(14회), 이승재(15회), 김세환(21회), 윤병섭(21회), 고희종(23회), 황만영(25회), 김창규(27회), 양대주(29회), 신용식(40회), 전택수(40회), 임종소(55회), 신항숙(56회), 정인찬(최경 16회)
⊙ 명예회장 : 박성철(39회)
⊙ 회 장 : 최영대(32회)
⊙ 수석부회장 : 변무현(39회)
⊙ 부 회 장 : 박용진(25회), 김세환(18회), 박수철(37회), 김소남(47회), 장기철(55회) 김진운(57회), 정기만(60회), 김병은(61회)
⊙ 감 사 : 안봉혁(24회), 이정효(36회)
⊙ 상임이사 : 총무 이사 - 이대우(49회) 기획 이사 - 남궁청완(55회) 자연보호이사 - 박찬욱(27회)
재무 이사 - 김용호(42회) 조직 이사 - 박정석(25회) 보건 이사 - 김성수(60회)
홍보 이사 - 추금호(32회) 기술 이사 - 박상경(55회) 구조 이사 - 공문석(27회)
국제 이사 - 현자희(37회) 학술 이사 - 최춘식(40회) 부녀 이사 - 박수자(59회)
⊙ 이 사 : 이진휘(8회), 정용빈(8회), 이규홍(9회), 강일모(10회), 김종관(10회), 김송원(11회) 박봉일(14회), 천삼랑(14회), 박구남(15회), 오학운(17회), 김영택(18회), 김우섭(18회) 구용서(19회), 이하우(19회), 표경열(19회), 박문송(20회), 어 약(21회), 이길영(21회) 한순태(21회), 손영창(22회), 윤각중(24회), 윤창준(26회), 이경호(27회), 오용수(28회) 김정직(29회), 이기운(29회), 구덕회(31회), 김만수(32회), 조원환(33회), 주의수(34회) 이정재(35회), 김경일(36회), 김형만(36회), 류영규(37회), 윤종언(37회), 장승빈(37회) 김태환(38회), 백성현(38회), 김태호(39회), 박장현(39회), 정의위(39회), 여영구(40회) 윤항웅(40회), 선명순(41회), 김성희(43회), 조시호(43회), 박정원(44회), 김창열(45회) 이강하(45회), 이춘우(45회), 류태석(46회), 홍계식(46회), 장윤섭(47회), 홍남석(48회) 강세훈(49회), 권득상(49회), 박종진(49회), 오상수(49회), 이강승(49회), 김상성(50회) 김호식(50회), 유각균(51회), 김태업(52회), 양도현(52회), 정두홍(52회), 권옥술(53회) 김정규(53회), 이영규(53회), 지동설(53회), 김성만(54회), 이우상(54회), 조순원(54회) 김병오(55회), 김상현(55회), 박성석(55회), 임 원(55회), 김한선(56회), 서광수(57회) 김 곤(57회), 심상현(58회), 윤용길(58회), 이광구(59회), 조길환(59회), 현보안(59회) 홍경선(59회), 강일선(60회), 김영진(60회), 성길용(60회), 조용진(60회), 하태현(60회) 김화겸(61회), 서해선(61회), 박용만(61회), 한정자(61회), 박관식(62회), 송기숙(62회) 김순일(63회), 정영규(64회), 조주희(64회)

1996. 6. 5

고경산악회 회장 최영대

교우회관 건립 주도한 鄭世永교우회장

초대석

『교우회관 건립기금을 모금하면서 뜨거운 애교심이 넘치는 16만 교우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 대기업들로 회관 건립에 선뜻 거금을 쾌척해 준것을 보면서 고려대학교가 대단히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교육기관으로 국민들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더욱 유익한 인재를 많이 배출해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93년 3월27일 교우회 정기총회에서 직접선거에 의해 제21대 교우회장에 선출돼 작년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22대 회장으로 연임된 鄭世永교우회장(46정치·68세·현대자동차명예회장)은 16만 교우들의 숙원사업이었던 현대식 교우회관 완공을 눈앞에 둔 지난 5월29일 현대자동차 명예회장실로 찾아간 기자에게 「큰 일을 해냈다는 자랑보다 十匙一飯으로 교우회관 건립 모금운동에 동참해 준 교우들과 거금을 쾌척한 대기업들에게 고맙다는 뜻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교우회는 지난 5월30일 모교 사범대 교정 옆에 지상 5층 지하1층 건평2천4백여평의 초현대식 교우회관을 완공하고 1천여명의 교우들이 모인 가운데 회관 준공식을 가졌다. 鄭회장이 취임한 후 연세대가 신촌에 현대식 동문회관을 지어 위용을 자랑하자 라이벌의식이 강한 교우들 사이에선 「고대 교우회는 뭐하느냐」는 비판론이 대두돼 왔었는데 3백여평 더넓은 교우회관을 지음으로써 그동안 의기소침해 하던 교우들의 자존심의 상처를 말끔히 씻어줬다.

"高大人 저력이 會館 건립 초석"

모교중흥의 新紀元 마련위해 産婆役 다할 터
「세계 속의 現代」일궈낸 지성·뚝심의 高大人



『제가 회장하는 동안 제일의 목표가 현대식 교우회관을 번듯하게 짓는 일이었는데 모교와 재단이 부지를 내놓고 교우들의 성원으로 마무리를 짓고 보니 이제 모교 중흥이 큰 당면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鄭회장은 『외국대학의 경우, 동창회가 대학발전기금 마련등 학교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창회담당 부총장을 두어 펀드레이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교도 섭외담당 부총장제를 신설했으니 이를 활용해 교우회와 상호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교우회가 모교 발전에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마침 교우회관에 모교 섭외담당부총장 집무실이 마련돼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동안 역대 교우회장은 나름대로 큰 족적을 남겨왔다. 성곡 金成坤회장(9·11대)은 고대 교우회가 성장할 기반을 닦았고, 김원기회장(12~16대)은 서울 종로 한복판에 교우회관을 마련했다. 張德鎭회장(17~18대)은 정력적으로 교우회사업의 다각화와 대규모화를 시도하는 등 활력소를 불어 넣었으며, 金一斗회장(19~20대)은 조직을 정비하는 등 내실을 다졌다. 이를 바탕으로 鄭회장은 『외국대학의 경우, 동창회가 대학발전기금을 모으는 데는 여건이 썩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도 불과 2년여만에 교우회관을 건립해 준것은 鄭회장이 아니고는 어려웠으리라는 것이 일반 교우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모든 일이 분위기가 조성돼야 성사되지요. 그래서 우선 교우회장단을 중심으로 건립모금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우들을 설득해 모금운동을 가속화시켰고 2차로 조금은 억지스럽지만 우리 교우들이 한 몫을 하고 있는 대기업 사주들을 찾아뵙고 후원을 요청해 94년말에 기본적인 재원은 모두 마련했습니다.』

鄭회장은 모 교우가 「돈많은 현대그룹에서 하나 지어 기증하지 뭘 궁색하게 모금을 하느냐」는 핀잔에 『현대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으면 그게 현대회관이지 교우회관이 아닙니다』고 했다면서 벽돌 한장 값이라도 내놓아야 자기 건물이라는 애착도 가고 교우들의 협조가 큰 힘이 되어 거금을 모을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실 금융실명제 실시등 경색된 자금흐름으로 기부금을 모으는 데는 여건이 썩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도 불과 2년여만에 교우회관을 건립해 준것은 鄭회장이 아니고는 어려웠으리라는 것이 일반 교우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모든 일이 분위기가 조성돼야 성사되지요. 그래서 우선 교우회장단을 중심으로 건립모금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우들을 설득해 모금운동을 가속화시켰고 2차로 조금은 억지스럽지만 우리 교우들이 한 몫을 하고 있는 대기업 사주들을 찾아뵙고 후원을 요청해 94년말에 기본적인 재원은 모두 마련했습니다.』

鄭회장은 모 교우가 「돈많은 현대그룹에서 하나 지어 기증하지 뭘 궁색하게 모금을 하느냐」는 핀잔에 『현대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으면 그게 현대회관이지 교우회관이 아닙니다』고 했다면서 벽돌 한장 값이라도 내놓아야 자기 건물이라는 애착도 가고 교우회관 건립 모금운동에 동참해 준 교우들과 거금을 쾌척한 대기업들에게 고맙다는 뜻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교우회는 지난 5월30일 모교 사범대 교정 옆에 지상 5층 지하1층 건평2천4백여평의 초현대식 교우회관을 완공하고 1천여명의 교우들이 모인 가운데 회관 준공식을 가졌다. 鄭회장이 취임한 후 연세대가 신촌에 현대식 동문회관을 지어 위용을 자랑하자 라이벌의식이 강한 교우들 사이에선 「고대 교우회는 뭐하느냐」는 비판론이 대두돼 왔었는데 3백여평 더넓은 교우회관을 지음으로써 그동안 의기소침해 하던 교우들의 자존심의 상처를 말끔히 씻어줬다.

『제가 회장하는 동안 제일의 목표가 현대식 교우회관을 번듯하게 짓는 일이었는데 모교와 재단이 부지를 내놓고 교우들의 성원으로 마무리를 짓고 보니 이제 모교 중흥이 큰 당면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鄭회장은 『외국대학의 경우, 동창회가 대학발전기금 마련등 학교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창회담당 부총장을 두어 펀드레이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교도 섭외담당 부총장제를 신설했으니 이를 활용해 교우회와 상호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교우회가 모교 발전에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마침 교우회관에 모교 섭외담당부총장 집무실이 마련돼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동안 역대 교우회장은 나름대로 큰 족적을 남겨왔다. 성곡 金成坤회장(9·11대)은 고대 교우회가 성장할 기반을 닦았고, 김원기회장(12~16대)은 서울 종로 한복판에 교우회관을 마련했다. 張德鎭회장(17~18대)은 정력적으로 교우회사업의 다각화와 대규모화를 시도하는 등 활력소를 불어 넣었으며, 金一斗회장(19~20대)은 조직을 정비하는 등 내실을 다졌다. 이를 바탕으로 鄭회장은 『외국대학의 경우, 동창회가 대학발전기

「총장선출방안」·「재정확충방안」 연구과제로 선정

高發研 3차 회의, 연구전담 소위원회 구성 완료

「고려대학교 발전연구위원회(이하 연구위)」제3차 회의가 지난 5월 15일(수) 오후 7시 롯데호텔에서 孫柱煥위원장을 비롯한 연구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위 결성이후 거론되어왔던 연구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중점연구과제를 채택했으며, 중점연구과제 채택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3차회의에서 채택된 중점연구과제는 「대학총장선출방안」과 「학교재정확충방안」이며, 앞으로 연구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구성과 함께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청회 개최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2가지 중점연구과제 선정

3차회의는 중점연구과제 선정을 안건으로 상정되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외국대학의 총장선출방식이 보고됐으며, 현재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수직선에 의한 선출 방식」과 「법인이사회의 직접 선임방식」의 장단점에 대한 교육부 자료가 설명됐다.

연구위원들은 현재 모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총장선출방식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총장선출방안을 중점연구과제로 채택했다. 특히 위원들은 총장 임기가 2년여를 남겨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문제가 연구되는 것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의견을 달리하는 모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에서 이 문제를 발의하기 보다는 교우회에서 문제를 발의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총장선출방안 이외에도 「모교재정확충방안」이 중점연구과제로 채택되었다.

이 과제는 현재 모교에서 추진중인 「바른교육 큰사람 만들기」운동에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항시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함께 연구하여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확보책을 마련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소위원회 구성

두가지 연구과제 선정에 따라 연구위에서는 중점적으로 연구과제를 전담할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총장선출방안 연구소위원회」는 윤백현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위원에는 이행원(한국일보 논설위원), 오충수(공보처 기획관), 김덕봉(행쇄위 행정실장), 권대봉(모교 사대교수)교우가 선임됐다.

「재정확충방안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양섭(명신산업 회장)교우가 선임됐고, 구종서(삼성경제연구소 상무), 김두곤(재단 사무국장), 이기수(모교 법대교수), 허훈(모교 자원과학대 교수)교우가 각각 선임됐다.

의견을 기다립니다

「고대발전연구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모교 발전에 대한 16만 교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발전적인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본보에서는 모교발전방안이나 발전위원회에 대한 교우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이 있으신 교우들은 내용을 적어 본보 편집국이나 교우회 사무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모교발전방안 및 고대발전연구위원회에 대한 제언등
△ 보내실 곳 :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대교우회관 5층 (Fax 924-2598)
△ 문 의 본보 편집국 (전화 924-2596~7)

※ 원고를 보내실 때는 姓名, 卒業回數, 連絡處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기고

「총장 直選」 이대로 안된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시행중인 총장직선제도는 지난날 군사독재정권을 축출하고 민주화를 이룩하였을때 대학사회에서도 민주화의 일환으로 재단의 총장임명제도를 거부하고 총장직선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볼때 임명총장을 통한 일부 재단의 대학행정과 경영의 장악, 그리고 사유화에 대한 반발과 견제심에서 연유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후 몇년이 지나면서 대학사회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반대의견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작년 총장직선제도의 폐지를 건의하였고 지방의 일부 사립대학 총장들도 총장직선제도 폐지의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금년에는 서울의 몇 대학들도 총장직선제도의 개선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총장직선제도에 의해 선출된 대학총장들이 총장직선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을 앞장서서 발표한 사실이다. 사실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대학사회에는 총장직선제도의 실시로 인해 야기된 극심한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소리없이 멍들고 있었다. 우선 총장후보로 출마하는 경우 전체교수들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교수사회에서 자원봉사할 사람은 없다. 여기에서 선거운동의 대가로 당선되는 경우, 보직의 보장이 이루어진다. 물밑으로는 실제 보직 수효보다 몇배의 많은 보직이 보장되기도 한다. 소위 보직의 立稻先賣인 셈이다. 이같은 과도한 보직의 보장은 지킬 수 없는 것이므로 당선된 이후에는 분란의 씨앗이 된다.

또 실천할 수 없는 공약의 남발도 부족해서 사기공약까지 등장한다. 특정 단과대학에 얽혀있는 미묘한 문제를 파고들어 해결을 거짓 약속하고 그 대가로 몰표를 보장받는 식이다. 지켜질 수 없는 이같은 사기공약은 당선 이후 곧바로 심각한 학내분규를 야기하게 된다. 또 총장후보로 출마하는 경우에 막대한 선거자금이 필요하다.

호텔과 일식집 등지에 선거본부를 설치하고 방대한 홍보조직을 운영하며 호화스런 접대와 향응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선거비용은 막대하다. 그런 막대한 선거자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주식형 총장이 출현한다. 특정후보를 중심으로 보직에 관심있는 교수들이 일정의 자금을 갹출하여 선거비용을 부담하고 당선하는 경우 보직을 주식배당으로 받는 식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유능하지만 재력이 없거나 점잖은 교수는 감히 출마할 수 없으므로 총장선거는 결국 돈선거로 변질될 수 밖에 없다.

총장선거에서 놀랄 일은 정치권의 선거전략이 그대로 모방·유입되는 것이다. 각 총장후보 진영에서는 전체교수 명단에 지지, 중립, 반대의 성향에 따라 교수들 이름 옆에 ○ △ ×표시를 한다. 그리고 △표에 대해서 맨투맨식의 집요한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학연과 지연이 동원되고 본교 비본교를 따지는 것은 예사이다.

직업적 선거꾼이 가세하는 것도 정치판과 똑같다. 총장선거가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그 얼굴에 그 얼굴들이 나타나 선거운동을 주도한다. 특정후보에 대한 선전, 지지와 함께 상대후보에 대한 인신공격과 중상모략을 일삼는다. 그러니 총장선거는 극도로 타락되고 파당과 분열이 난무할 수 밖에 없다.

총장직선제도는 선거 이후가 더 심각하다. 당선된 총장은 표를 몰아주고 선거자금을 제공한 교수들의 압력, 한정된 보직자리, 남발한 공약에 발목이 잡혀 아무 일도 못하고 임기를 마치게 된다. 경륜이 부족하고 통찰력은 미비한 채 권모술수에만 능한 인사일수록 그 정도는 심할 것이다. 반면에 낙선된 후보는 다음 선거를 위해 표밭 관리를 계속한다. 그러므로 선거 때의 조직과 파당은 그대로 유지되고 당선된 총장의 견제세력으로 남아 실수와 빈틈을 노린다. 따라서 선거 때 형성된 분열과 대립의 현상은 다음 선거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교육과 연구 그리고 지성의 전당이어야할 대학사회는 현실정치를 빰치는 돈선거판으로 변질되고 선거꾼 교수들의 득세 속에 분파와 반목의 늪 속으로 빠져 버리게 마련이다. 이같은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총장직선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의 일반적 현상일 것이다. 총장직선제도에 의해 당선된 총장들이 이같은 폐단과 결점을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총장직선제도의 폐지 내지 개선을 건의하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21세기를 지향하고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G-7진입을 이야기하고 있다. 권모술수로 돈선거를 자행하고 정치와 교육을 혼동하는 정치총장은 필요없다. 그렇다고 과거 재단의 총장임명제도로 돌아가서도 안된다. 분명한 것은 족벌체제에 의한 재단의 대학경영권 장악과 사유화를 차단하면서도 직선제도의 폐단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李春埴(모교 동양사학과)교수

◇ 외국대학의 총장선출제도

문화적 전통 따라 다양한 방식 채택

미국, 광범위한 인물 탐색과 철저한 검증 진행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들은 대부분 총장선출이 소수 이사진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전세계에 걸친 광범위한 인물탐색, 여론조사, 철저한 인물검증 등 합리적인 절차와 1년여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총장선출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다.

하버드대학의 경우, 현총장이 사퇴의사를 밝히면 3백년의 전통을 가진 「후임총장물색위원회」를 즉시 가동시킨다. 대학의 모든 결정은 30명의 동창대표로 구성된 감독위원회(Board of Overseers)의 추인을 받아야 하며, 총장물색위는 감독위원회에서 선임된 3인의 위원과 하버드 법인의 총장, 감사, 5인의 이사로 구성된다. 90년 총장 선출 당시,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서한은 25만8천여명에 달하는 하버드 관련인사에게 발송됐고, 3백여명의 교수·학생과의 면담이 진행됐다. 배경조사와 개별면담을 통해 후보자가 결정되고, 법인과 감독위의 승인을 거쳐 총장이 선출되는데 소요된 기간은 거의 10개월이었다.

영국, 교수위원회서 취임 2년전 선출

영국의 경우는 30여명의 교수들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총장이 선출된다. 이때 총장은 사전선거운동이나 조율없이 위원회에서 결정되며 폭넓은 경험과 행정력을 인정받은 인물이 주로 선출된다. 영국의 총장선거의 특색은 총장이 임기를 마치기 2년전에 미리 차기총장을 선출하여 2년동안 대학운영에 관한 업무를 미리 익힌다는 점이다.

佛, 日. 대학구성원 참여하는 직접선거

프랑스의 총장선출방식은 직접선거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85개의 국립대학이 있는 프랑스는 행정위·학술위·대학생활위 등 3개 위원회가 총장선출에 참여하는데 각 위원회는 교수·학생·교직원등이 일정비율로 참여하고 있다.

일본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직접선거방식을 택하고 있다. 동경대의 경우 2단계의 선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먼저 학부, 연구소별로 선출된 대의원들에 의해 5명의 후보자를 선출한다. 이렇게 선출된 5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교수 전체회의에서 직선으로 1명을 선출하여 본인의 수락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총장에 선출된다.

獨, 대의원회서 선출…주정부와 합의

독일은 대학이 국가기관인 동시에 자치기구로 인정되고 있어 각 주정부에 따라 총장선출의 고유한 특성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총장선임을 위한 대의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두어 총장을 선출하고, 주정부와 합의를 통해 총장을 최종선출한다. 대의원회는 교수·학생·연구직 직원·비연구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총장을 선출하는 데, 과반수 이상이 교수로 구성되어 있어 교수들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다. 하지만 정부와 대학간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임공고를 다시 내야하는 등 의견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점이 특징이다.

"세계화시대 이끌 人材 길러내자"

제3회『바른교육』포럼 개최…「세계화 시대의 바른교육」주제

대외협력처는 5월30일 오후 1시30분 인촌기념관에서 제3회 『바른교육·큰사람만들기』포럼을 개최했다.

「세계화 시대의 바른교육」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朴源弘(58정외·KBS심야토론 사회자)교우의 사회로 모교 權大鳳(71교육·교육학과)교수와 南宮 晳(60경상)삼성데이타시스템 사장이 각각 「世界化 時代의 바른교육이 指向해야 할 人材像」과 「世界化 時代의 큰사람 養成」을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으며 李初植(철학과) 黃鍾善(컴퓨터학과) 姜鎬珍(경영학과) 모교 교수들이 토론자로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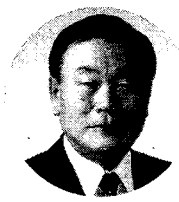
주제1 權大鳳교수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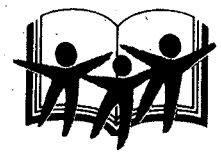
「世界化 時代의 바른교육이 指向해야 할 人材像」은 ▲민주시민 ▲조직시민 ▲세계시민 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세계화 시대에 이러한 시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선 계약문화를 근거로 형성된 서구의 민주시민 개념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과 조직성원에게 요구되는 건전한 철학과 창의력, 이에 더해 세계시민의 자질로 요구되는 국제감각, 외국어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은 민주·조직·세계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핵심교육과정개발과 정규교육과정외 특별교육과정 증설, 큰사람만들기위해 필요한 교육 인프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주제2 南宮 晳사장 발표



작금의 시대는 지식중심의 시대이며 무한경쟁 시대이고 국제문화



개편의 시대를 맞고 있다.

세계화 시대의 인재상은 「큰사람」이며 「큰사람」의 조건은 相生人-더불어 사는 사람(열린 마음), 創造人-만들어가는 사람(열린 머리), 세계인-뻗어 나가는 사람(열린 행동), 애국인-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사람(뿌리정신)이다.

이러한 「큰사람」양성을 위해 대학에선 사회봉사교육(相生精神), 창조적 전문화 교육(발상전환 및 초기능적 능력), 국제문화이해 교육(다문화적응력), 전통사상 교육(정신적 國籍) 등에 힘써야 한다.

「孝캠프」 6.29~30일 개최

「孝와 가족사랑 큰 마당」이 오는 6월 29일(토)부터 30일(일)까지 1박2일간 보광 휘닉스파크(강원도 평창군 면온면 길음리 소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행사는 94년 10월 10일 洪一植총장의 「바른교육·큰사람만들기」운동을 위한 선언에 따른 교육실천으로 지난해 6월 2박3일간 강원도 고성의 「孝道캠프」에 이은 두번째 행사이다.

「孝와 가족사랑 큰 마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게된 것은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일방적이고 종적인 윤리관념을 지양하고 현대 민주사회의 수평적이고 상호적인 가족사랑의 개념으로 민주적인 가족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바램에서 비롯됐다. 이번 행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마당 「만남」에서는 모교 농구부 시범경기(고려대와 동양제과)와 입소식 및 오리엔테이션, 鄭宇鉉(교육학과)교수의 개영강좌 및 산업계인사 특별강연이 있으며, 둘째마당 「어우러짐」에서는 「바른교육」운동의 교육실천인 「孝와 가족사랑 큰마당」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며 이 운동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로 인기가수 김현철과 응원단의 축하공연과 운동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우등불 점화, 불꽃축제, 촛불의식 등이 진행된다. 「효와 가족사랑의 도장」이란 주제의 셋째마당에서는 바른교육의 참된 의미를 일깨우고 효와 가족사랑의 도장이 되는 한마당 자리를 마련하여 洪총장의 특별강연과 강영숙 예지원 원장의 예절교육 및 洪準杓(70행정·국회의원)교우의 「가족사랑과 성공」주제의 특별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또 「교대발전과 구성원의 역할」이란 주제의 넷째마당에서는 모교의 현주소와 미래발전상을 소개하여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교대 가족 각 구성원들의 역할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인천, 강릉, 제주, 원주지역 지방설명회 盛了

4곳 지방 교우들 총 1억1천만원 약정

지난 4월23일 인천을 시작으로 한 「바른교육·큰사람만들기」 지방설명회가 교우들의 많은 참여속에 성공적인 결과를 거뒀다.

인천지역과 강릉지역(4월26일)설명회에 이어 5월에는 제주지역과 춘천-원주지역 설명회가 열렸으며 4곳의 지방설명회를 통한 각 지역교우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로 총 1억1천1백23만원의 운동성금을 약정받았다.

제주지역

5월9일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제주-서귀포지부 교우 및 제주지역 학부모초청 설명회는 70여명의 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洪一植총장의 바른교육 특강과 함께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高大장기발전계획이 학부모와 교우들에게 자세히 설명됐다.

이 날 설명회에는 李璟成(10고정) 李昌奎(62농화) 제주지부 회장과 부회장, 梁斗憲(59임학) 서귀포지부회장, 임휘련 그랜드호텔부사장, 강재엽 삼윤교통회장, 高舜澤(62토목)세기문화사대표, 서경림 제주대교수, 李昌勛(64경영) (주)명주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제주-서귀포지역 교우들은 이 날 「바른교육」 지지문을 채택, 洪총장에게 전달했고 59명이 4천3백46만원(현금입금 7백78만원)을 약정했다.

춘천-원주지역

5월16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춘천-원주지부 교우 초청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 날 설명회에는 李鐘九(53생물) 춘천지부회장, 黃善治(58법학)원주지부회장, 崔明秀(69체육)여주지부회장, 韓仁燮(62대석)강원대교우회장, 金國燦(74독문)춘천지부간사 등 50여명이 참석해 「바른교육」 운동에 동참할 것을 결의하며 8백82만원(현금입금 36만원)을 약정했다.

6월10일 학부모대상 「바른교육」설명회

대외협력처는 『신입생 학부모 초청 「바른교육·큰사람만들기」운동 설명회』를 오는 6월 10일(월) 오후3시에 인촌기념관 강당에서 개최한다.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교가 추진하고 있는 「바른교육·큰사람만들기」운동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된 이 설명회는 孝道캠프 영상물소개와 학교현황 및 장기발전계획 설명에 이어 학장, 학과장과의 대화시간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학부모도 고대 가족의 일원임을 확인시키고 학교 이미지홍보에 일익을 담당케하며 나아가 「孝와 가족사랑 큰 마당」행사에 많은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약정자 교우 명단

(96. 4. 21 - 96. 5. 20)

149명 약정금액 : 118,530,000원

◇개인구좌약정 괄호안은 (구좌약정·졸업회수 학과) *完-완납

강기춘(1·76경제) 강서옥(2·77의학) 강신권(2·64사회) 강은정(2·73가교) 고강훈(3·29의학) 고광록(2·78법학) 고대경(2·74법학) 고석태(3·80경영) 고수정(2·60행정) 고순택(1·62토목) 고충정(7·78법학) 권미숙(1·78영문) 권희근(1·58농경) 김공규(10·46정외) 김광언(10·82철학) 김광윤(1·66의학) 김규한(3·52법학) 김문홍(2·64임학)完 김상조(1·71국문) 김성호(1·83행정) 김승철(2·76의학) 김영소(1·56법학) 김영숙(2· 6의학) 김용관(5·23의학) 김윤학(1·61국문) 김인호(1·76사회) 김일환(2·75의학) 김재식(1·67법학) 김재원(1·56영문) 김정규(2·68의학) 김종민(1·80사학) 김종식(1·62불문) 김진영(1·74사회) 김태훈(1·74농경) 김헌석(2·24의학) 김호원(3·74지질) 나경찬(1·64경영) 나정기(1·58국문) 남상학(1·80의학) 노재천(1·69경영) 문헌영(2·27의학) 민영규(3·52정외) 민혜영(2·76생물) 박경찬(1·76독문) 박대순(2·71의학) 박만기(2·76경영) 박무모(3·63토목) 박성규(2·79의학) 박영복(1·69산업) 박용길(3·69교육) 박용석(1·55농학) 박용수(1·85의학) 박윤정(3·82일문) 박인환(1·75행정) 박한설(1·54사학) 반창모(3·70법학) 방돈기(2·58행정) 번춘방(30·65의학) 서화영(1·78경영) 성대림(2·74의학) 소인섭(1·64원예) 송동호(2·72의학) 신동춘(2·20의학) 안창권(1·78법학) 양두병(1·83대석) 양두헌(10·59임학) 어강우(2·28의학) 오세부(2·20의학) 오완석(1·54농화) 유한석(1·72재료) 윤남하(1·76농경) 윤병호(1·67대석) 윤영수(1·83국문) 윤재환(1·59경영) 이강윤(1·66농화) 이건명(1·54사학) 이경주(1·71경영) 이광홍(1·17의학)完 이규범(2·77의학) 이기종(1·73불문) 이민건(2·65의학) 이봉헌(1·58경영) 이상경(1·28교석) 이상용(1·60임학) 이상인(2·68경제) 이선주(1·71화학) 이성근(2·29의학) 이성범(1·71지질) 이성철(1·63경제) 이승수(2·65의학) 이영화(1·89국교) 이인호(1·57경영) 이일범(3·62영문) 이정규(10·56상학) 이창훈(2·64경영) 이철호(1·41경석) 이항우(1·56농화) 임성주(1· 8교석) 임재섭(1·68금속) 임종한(1·71사학) 장성훈(1·72의학) 장주익(2·66농경) 전수택(2·61경제) 전신권(2·73의학) 정의흠(2·70의학) 조진용(3·건축) 조철구(10·22의학) 조철희(1·83축산) 진성균(1·51사학) 최승익(1·58정외) 최준익(1·57경제) 최창호(1·68법학) 최철웅(1·87정보) 한인섭(5·62대석) 한지호(1·59법학) 한철규(2·68화학) 허병익(1·71행정) 허봉진(2·79의학) 현광철(2·78의학) 홍경의(1·57정외) 홍명기(1·74건축) 홍상훈(2·70의학) 홍성도(1·54철학) 홍성선(1·76농경)

◇금액약정

▲5백만원 최용규(57법학)
▲2백만원 조원민(70건공)
▲1백만원 강재업(25최경)完 권오선(73의학) 김관식(29최경) 이경성(65임학)
▲50만원 강태영(23의학) 박용우(83국문) 박중근(65농화) 서경림(73대석) 이성대(45영문)完 임휘련(63경영)完 최명수(69체육)
▲46만원 임영훈(64전기)
▲30만원 류창현(66국문)
▲20만원 이중수(57경제)
▲12만원 김종철(81사회)
▲10만원 김용철(78경영)完 정명규(85산자)完 최호석(64수학)完
▲5만원 윤양섭(59경제)完

◇단체구좌약정

▲10구좌 제주지역80학번모임
▲2구좌 칠레지부교우회 完
▲1구좌 새마을운동서귀포지회 完 호팔회(경제학과80학번)

쳐진 高大人 큰잔치

우회관 준공식」 書報

高麗大學校 校友會館 竣工記

우리 高麗大學校 校友들은 母校의 開校 91周年을 맞는 歷史的인 오늘 오랜 宿願이었던 校友會館을 竣工한다.

祖國과 民族을 위하여 獻身하고 母校發展을 支援하는 모든 校友들의 한결같은 念願과 精誠으로 이 校友會館은 建立되었다.

마음의 故鄕 安岩의 언덕에 우뚝 솟은 이 會館은 敎育救國의 崇高한 理念과 自由 正義 眞理의 精神으로 쌓아올린 不滅의 塔으로서 冷徹한 知性과 뜨거운 野性을 萬代에 길이 전할 자랑스러운 殿堂이다.

즈믄 해 불밝히는 猛虎의 氣像이어
온 누리 뒤흔드는 우렁찬 咆哮여
너의 힘과 슬기로 새 歷史를 펼쳐라

1996년 5월 5일
高麗大學校 校友會

수상자로 선정되어 영광스 패와 기념메달을 수여받은 朴전교우회장과 崔平和모교 교수. 주체할 수 없는 꽃다 례를 받은 金교우는 답례로 아은 상패와 기념메달을 높 어 수상의 기쁨을 표현했 특히 수상자대표 인사에서 우는 『고대인이라는 한 가지 자체가 바로 영광이요, 자 』라며 『오늘 참석한 국회 교우들이 모교 발전을 위해 에 대결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당선 교우가 참석, 정치에는 「여야가 있어도 고대는 하나」임을 입증. 여야의 중진급 교우들이 서로 반가운 얼굴로 악수를 나누며 식사를 함께하는 장면은 고대인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모습의 토대는 역시 新교우회관이라고 주위 참석교우는 寸評. 특히 모교와 교우회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은 실로 고대인 이기때문에 가능한 일.

축하의 場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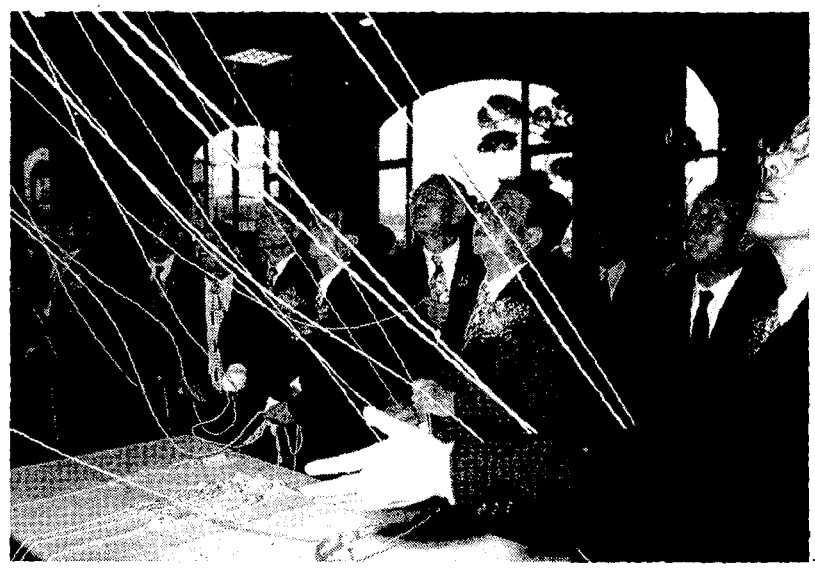
단, 기념 조형물에 새겨
백여평 크다"보고에 큰 박수

○… 교우회관 준공은 교우만의 기쁨은 아닌듯. 참석한 교우들을 야 할 것』이라고 모교사랑 쳤다.

○… 鄭世永회장과 洪一植모 이 함께 전달한 국회의원 축하패 전달식에는 최고령 교우와 최연소 元裕哲교우 란히 참석해 이채를 띠었 李교우는 39회 경상출신이 元교우는 79회 철학과 졸업 과 당장 졸업횟수 차이만도 하. 실제나이도 40여년차이 대의 연륜이 그대로 나타난 세월이 흘러도 항상 젊은 고 풍모를 현실화한 장면이라 석교우들은 이구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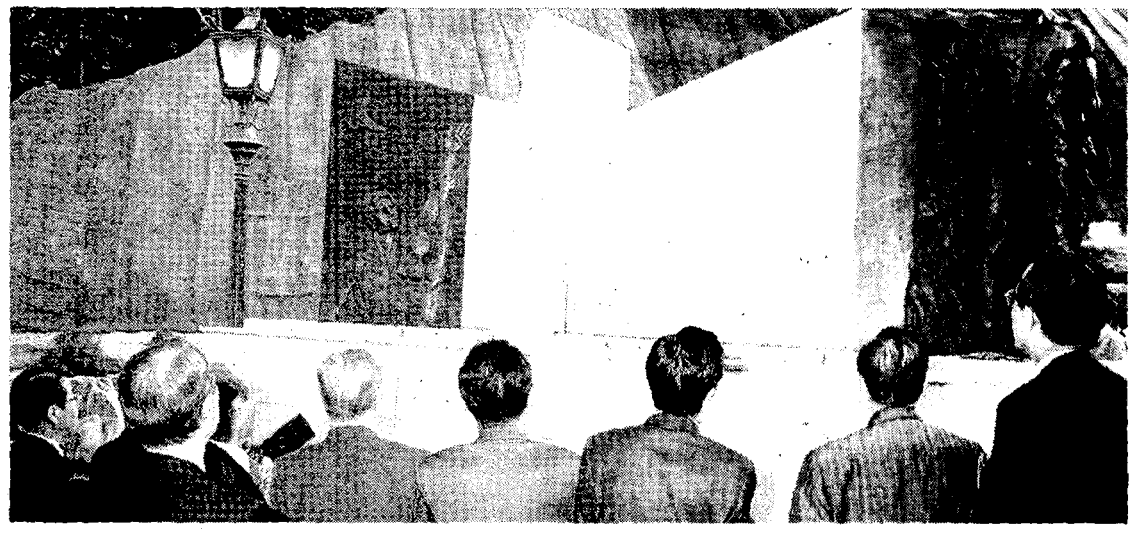
○… 국회개원 문제로 여야간 친절한 미소로 안내한 사람도 역시 고대 여학생이었고, 선배들의 모임에 후배들이 나와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도 재학생을 대표한 총학생회 간부. 이 모습은 고대의 전설은 박제화된 전설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셈.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말쑥히 차려입고 선배들의 잔치에 나와 재학생들을 대표해 축하의 인사와 선배들을 따라 조국과 민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해 「새끼 호랑이도 역시 호랑이」라는 찬사가 연발됐다.

〈來〉



오탁번(62영문)모교교수가 글을 짓고, 金膺顯(45영문)교우가 글씨를 쓴 교우회관 준공기 全文. 16만 高大人의 염원이 담겨 있다.(上)

新교우회관 1층 벽면에 부착된 교우회관 준공기를 제막하고 있는 참석자.(左)



미술교육과 姜熙德교수가 제작한 교우회관 기념조형물을 제막한 교우들이 조형물을 둘러보고 있다.



들의 오랜 宿願을 가위에 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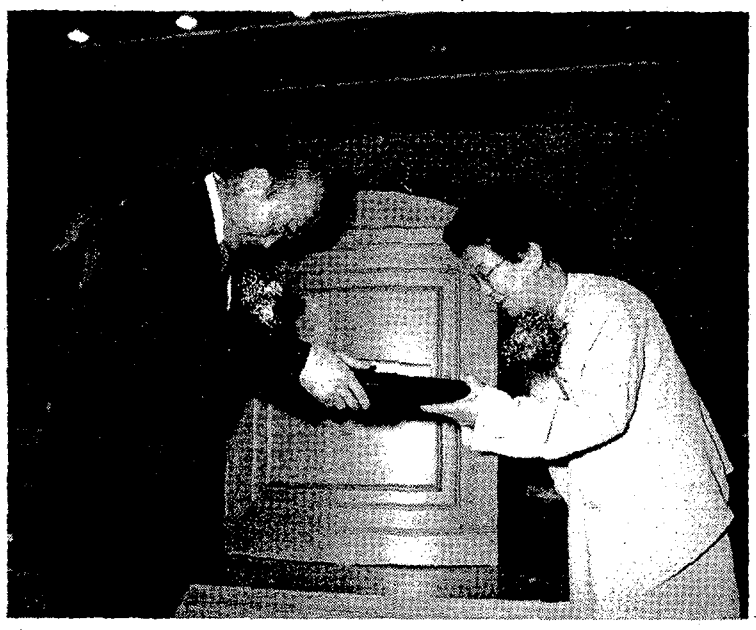


고대인의 잔칫날을 위해 준비된 기념케이크를 절단하고 있는 鄭世永교우회장, 洪一植총장(左), 蔡汶植재단이사장(右).



선배교우들의 잔치에 재학생을 대표해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하고 있다.





「'96 자랑스러운 고대인상」을 수상한 金一斗교우가 상패를 들어보이며 기뻐하고 있다.(사진 上) 또다른 수상자인 崔平和교우에게 상패를 수여하고 있는 鄭世永교우회장.(사진 下)

安岩 새보금자리서

「'96 고대인의 날 및

○ … 5월30일 열린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전고대인의 숙원사업이었던 「교우회관 준공식」. 행사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교우들의 발길이 하나둘 모교 교정으로 모여들어 90년 전통을 가진 명문 사학답게 청년과 장년, 그리고 노년이 함께하는 캠퍼스의 분위기를 연출한 이날 행사에서 참석한 1천여명의 교우과 재학생들은 현판과 기념조형물이 제막되자 일제히 환호성과 박수로 화답, 장관을 연출했다. 특히 신문, 방송기자들이 대거 몰려 「高大」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를 반영하기도 했다.

○ … 2부행사에서 개식선언에 이어 尹百鉉사무총장의 교우회관 건립보고에서 「新교우회관」이 연세대 동창회관보다 3백50여평이 넓고 그 시설면에서도 앞선다고 발표하자 장내의 교우들은 일제히 환호성과 박수로 「영원한 맞수 연대」보다 탁월한 우리 고대의 면모를 자축하기도.

○ … 이날 행사에서 가장 고역을 치른 사람은 鄭世永교우회장. 현판제막부터 마지막 리셉션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시간은 불과 5분도 안됐다. 고대인의 날 행사와 준공식, 그리고 15대 국회의원 당선자 축하연이 함께 열린 관계로 시상식과 축하패 시간이 1시간여에 육박해 교 넌 고역을 치뤘다. 하지만 「 최고의 날」을 맞은 듯한 기 로 鄭회장은 연실 환한 미 수상자들에게 기념패과 선 전달, 역시 鄭회장이라는 칭 받기도. 사회자도 이를 감안 교우들의 박수를 유도, 기념 은 기쁨과 축하의 분위기가 일관 연출됐다.

○ … 고대가족상패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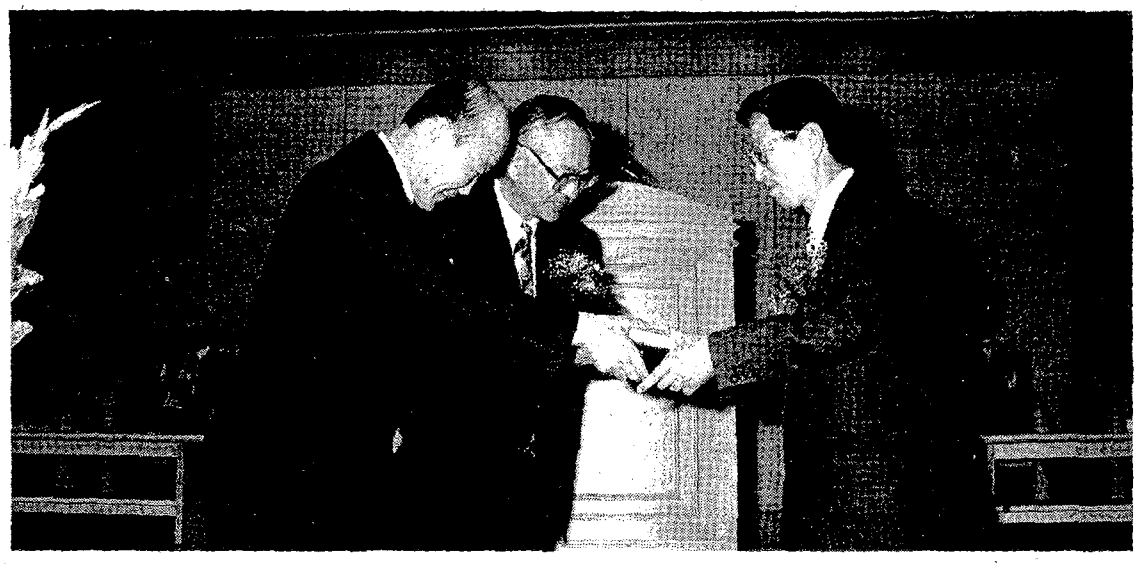
모교 중흥 기약

백만원이상 건립기금 입

천여명 교우들 "연대 동문회

서 가장 눈길을 끈 교우기 趙恒彦(53정외)교우 가족. 우는 동아일보에서 30여년간 자생활을 한 언론계 중진으 년전 지병이었던 고혈압으로 해 중풍에 걸린 불편한 몸 시상식장에 참석, 아들 允 경영)씨의 부축을 받고 가족 수상했다. 불굴의 의지로 고 의 기상을 보여준 趙교우에게 석한 교우들은 뜨거운 박수와 다발로 답례, 영화의 한 장 연출했다.

○ … 이날 행사에서 가장 은 카메라후레쉬와 꽃다발을 은 교우는 「'96 자랑스러운



총 85명의 15대 국회의원 교우 중 가장 선배인 李重載교우가 鄭교우회장과 洪一植모교총장에게 축하패를 전달받고 있다.



국회의원교우도 역시 패기에 가득찬 高大人.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 교우들이 손을 높이들고 「입실렌티!」를 외치고 있다.



新교우회관 준공의 서막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 참석교우는 물론 아 풀고있다.

校友동정

人事

부음

◀金炳洙(15공학·전)=교육부 총무과장께서 모친상을 당하여 장례식장 ◀金泰鑾(45경영·전)=북대 교무과장으로

회원동정

◀金世源(68동계)=장원관광호텔 상무이사로 ◀安致樂(82행정·졸)=총무부실 대리에서 과장으로

동문개업소식

◀李相基(63농경)=농협 양양군지부 부장으로 ◀李鳳鎭(63농화)=한일합섬 수원공장 부장으로 ◀金泰鑾(45경석·전)=북대 교무과장으로

교수임용

◀李宇鎔(30상·本會 회원)=모전공 30회 모임인 丁亥會 회장인 李교우가 5일 신경영 과정행으로 5월 5일 알몰·몽골지부를 발 일 다녀 5월16일 평양지부를 발 발족하여 현재는 북한지부를 1888 ☎(02) 946-1

관세사 개업

◀李鍾郁(37상학·本會 회원)=수험관련과목 미국 자인 李교우는 금년 제1회 관세사 시험 중 회계학과목인 관세실무를 선택, 5월31일까지 6월14일부터 5월 관세기본법」「관세평가법」「관세법과 미국」추제의 총 전문을 게재하고 있다.

「한국통신노조」 토론

◀金斗鉉(43법률·本會 회원)=한국통신노조위원장 28일 李교우는 5월 광주일보 편집국장과 「사 회법률과 언론통제제도의 발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아현초개교80주년 잔치

◀盧貞鉉(48법·本會 상임이사)=한국법률문제연 영구원 원장인 盧교우는 지난 4월16일 제50차 우수 수석과정 졸업하여 한국대표단 주석대표로 참석, 「금융 주관연구」에 관해 기 발표하고 개최.

관훈클럽 공개좌담

◀李宇鎔(30상·本會 회원)=관훈클럽 총무간사가 지난 4월18일 정보통신부 장관과의 공개좌담을 주선.

교육이론으로 영화 치료

◀李宇鎔(30상·本會 회원)=관훈클럽 총무간사가 지난 4월18일 정보통신부 장관과의 공개좌담을 주선.

토지개발공사

◀閔基洪(67경제)=한국토지개발공사 영구수장관에서 총무실 실장으로

농협중앙회

◀李相基(63농경)=농협 양양군지부 부장으로 ◀李鳳鎭(63농화)=한일합섬 수원공장 부장으로 ◀金泰鑾(45경석·전)=북대 교무과장으로 ◀金璋圭(65상학)=총무부실 대리에서 과장으로 지점장으로 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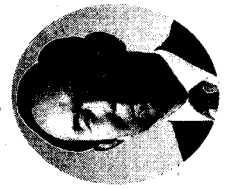
近況

관훈클럽이로 영화 치료

◀李宇鎔(30상·本會 회원)=관훈클럽 총무간사가 지난 4월18일 정보통신부 장관과의 공개좌담을 주선.

마스터 카드 로스엔젤 책임

◀李龍燮(54경제·本會 상임이사)=BC카드 본부이사인 李교우가 5월11일자로 로영업총괄이사로 발령.



「한국통신노조」 토론

◀李泰夏(56경제·本會 상임이사)=한국통신노조위원장 李교우가 지난 4월29일 한국통신 노조회관에서 열린 「한국통신 노조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



「여성정치학」 토론회

◀金眞漢(63교육·本會 상임이사)=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이사장인 李교우가 5월10일 한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15대 총선과 여성의 정치참여」란 주제로 여성정치학 토론회를 개최.

「4자회담의 과제와 추진」 심포지엄

◀李度熙(66법학)=사단법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인 李교우가 「4자회담의 과제와 추진방향」을 주제로 6월5일 서 제19회 통일문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 ☎(02) 396-2590

대한통신 전무이사 전보

◀鄭在根(68경영)=대한통신 전무이사는 지난 일사 출판 명우학교수를 5월18일 강릉지점장으로 발령. ☎(02) 735-8821

서울농협 조합장 취임

◀崔淵燮(69농·本會 상임이사)=도서출판「이우」 대표인 崔교우는 한국종합 터 24일까지 개최한 96서 울올림픽도서전에 「이우」의 그림책 「금강산화 시리즈」 가 「남성이 세계를 움직이는 간」을 출품 전시.

충남도지사 자문위원

◀金珍元(69사회)=美國 오리건주정부 駐韓 및 대한민국 金교우는 지난 3월1일 충남도지사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金교우는 2일에는 대전 충남도청에서 열린 「세계화 시대의 지방정부의 역할」 주제로 강연.

「새농협상」 수상

◀李度熙(66법학)=사단법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인 李교우가 「4자회담의 과제와 추진방향」을 주제로 6월5일 서 제19회 통일문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 ☎(02) 396-2590

대한통신 전무이사 전보

◀鄭在根(68경영)=대한통신 전무이사는 지난 일사 출판 명우학교수를 5월18일 강릉지점장으로 발령. ☎(02) 735-8821

서울농협 조합장 취임

◀崔淵燮(69농·本會 상임이사)=도서출판「이우」 대표인 崔교우는 한국종합 터 24일까지 개최한 96서 울올림픽도서전에 「이우」의 그림책 「금강산화 시리즈」 가 「남성이 세계를 움직이는 간」을 출품 전시.

충남도지사 자문위원이로

통관상식을 잘 몰라 김포국제공항 검사대에서 곤혹스러워하거나 단체일행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는 서울세관 파주감시서의 洪貞植(48경연)교우는 교우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통관상식을 문답식으로 풀이한 자료를 편집국으로 보내와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洪교우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348)943-0123

여행자가 알아야할 세관상식

1.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신고해야 할 물품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해외취득가격 합계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오는 7월1일부터는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됨)
●상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미화 1만달러상당을 초과하는 외화

2. 해외여행자가 취득한 물품중 면세가 되는 물품은?
●여행중 휴대한 일상 신변용품
●출국시 휴대반출 확인을 받은 물품
●1리터이하의 술, 담배 200개비, 향수 2온스
●기타 해외에서 구입하였거나 선물로 받은 물품들의 해외 총취득 가격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3. 비디오카메라를 한대 사오고 싶은데 세금을 납부하면 세관통관이 가능한가?
일본제 비디오카메라는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3-4-3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으로 일반여행자는 세금을 납부하여도 통관할 수 없다. 다만, 이사화물로 반입하는 경우(독신 2년이사, 가족동반 1년이상 해외거주시)에 한하여 통관이 허용.

4. 사업상 필요하여 휴대폰 1대를 구입하고 싶은데 세관의 통관절차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 적법한 통관절차와 세금을 납부하셔야 이동통신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시 필요서류:휴대폰 수입신고서 및 납부영수증, 신분증)

5. 개인용 컴퓨터를 구입하여 반입할 경우 통관절차는?
컴퓨터는 전파관리법에 의한 전자파 장애검장대상물품이므로 전파연구소의 수입기기 확인서를 발급받아 오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6.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로서 모국방문시 밍크코트 및 로렉스 시계 등을 입거나 차고 입국할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입국할때 세관에 신고하여 휴대반입절차를 밟으면 재반출을 조건으로 현장면세가 가능하다. 이는 최초 출국시에 꼭 갖고 나가야 하며 만약, 출국시 재반출하지 못할 경우 세금납부 등 적법한 통관절차가 끝나야 출국이 가능하다.

7. 여행자수표 및 현금으로 미화 1만달러를 소지하고 입국할 경우 세관에 신고가 필요한가?
미화 1만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를 소지하신 분은 세관에 신고하여 외화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8. 타법령에 의하여 세관장이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에 통관이 가능하도록 한 품목과 필요서류는 어떤 것들인가.
●총포, 도검, 화약류(내무부장관 또는 시장 도지사 허가서)
●무선설비(햄장비)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서)
●음반 및 비디오물(문화체육부장관허가서)
●정보통신기기 ●유선통신단말기
●애완용동물(동물검역증)
●육류 및 과일류(동물 및 식물검역 합격증)
●무선통신용 송·수신기(정보통신부장관 형식승인)

9. 주요 물품에 대한 세율은?
●VTR, TV, 음향기기 등-해외구입가격의 45%
●골프채 - 52% ●녹용 - 50%
●양주(의스키류) - 204%
●밍크류, 보석류(1백만원 이상) - 51%
●고급손목시계(1백만원 이상) - 51%
●다이아몬드제품(1백만원 이상) - 51%
●의류 및 기타잡품 - 20%

10. 외국에 전시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재반입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는?
외국에 수출하였다가 1년 이내에 재반입된 물품임을 수출면장 등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면세통관이 된다. 또한 해외상설 전시관 전시용기계, 기구는 수출면허일로부터 2년이내 재수입, 해외 비상설 전시관에서 3개월 이상 전시한 것으로서 수출면허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재수입되는 것도 면세통관이 가능하다.

11. 외국에서 구입한 물건인데 고장이 나서 수리하여 오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가공,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 재반입되는 물품임을 수출면장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하다.
다만, 同물품에 대한 수리, 가공분에 대한 관세는 부과된다. 따라서 관세감면신청서 및 가공수리내역서를 수입면허전에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獨특허법원장 초청 강연

▲李基秀(법학과교수)=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인 李교수는 5월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트라이버 독일 특허법원장과 항우크 독일 특허청장을 초청하여 심포지엄을 개최.

최고경영자과정 특강

▲池 淸(경영대학원장)=6월4일 최고경영자과정 강의실에서 金仁浩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경제환경변화와 경제정책 운영방향」주제의 특강 개최.

日신경외과학회서 발표

▲徐中根(의대교수)=6월5일부터 7일까지 일본천추학회초청으로 나고야에서 열리는 일본신경외과학회에 참석, 「흉요추부 질환에 대한 최신 수술 직연」 결과를 발표.

華燭

▲金璽燮(49상학·本會상임이사)=대흥무역 고문인 金교우의 차남 재우군이 6월8일(토) 오후 1시 서울 공항터미널에서 결혼식. 신부는 유홍수씨 장녀 승희양. ☎(02)534-8482

▲申洵雨(58법학·本會이사)=국립농산물검사소 장인 申교우의 장녀 선경양이 6월15일(토) 오후 2시 축현홍앙회 예식부에서 결혼식. 신랑은 장은씨 차남 승협군. ☎(0343)46-0121

▲黃祐澤(58정외·本會상임이사)=태협건설(주)회장인 黃교우의 장녀 聖喜양이 6월21일(금) 오후 1시 명동성당에서 결혼식. 신랑은 金龍煥씨 3남 賢俊군. ☎(02)337-9888

▲宋浣錫(51사학)=한국공항공단 환경부부장인 宋교우의 3녀 智卿양이 6월1일 하림각에서 결혼식. 신랑은 崔武安씨 장남 英圭군. ☎(02)359-3949

▲李在奐(54정외·本會상임이사)=前국회의원인 李교우의 장녀 恩慶양이 5월23일 서울 롯데월드예식장에서 결혼식. 신랑은 李載洪씨 장남 宇鏞군. ☎(02)545-4547

▲廉勳鉉(57입학)=강남구청 시민봉사실 계장인 廉교우의 장녀 수민양이 5월17일 횃불선교회관에서 결혼식. 신랑은 이면희씨 장남 재우군. ☎(0342)707-7970

▲申元澈(24경연)=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인 申교우의 장녀 숙진양이 5월19일 해군해관에서 결혼식. 신랑은 서태선씨 장남 정호군. ☎(032)817-3010

▲尹碩暎(24최경)=㈜매일식품 대표이사인 尹교우의 3남 정대군이 6월2일 대구 명성웨딩에서 결혼식. 신부는 이복진씨 4녀 지영양. ☎(053)581-2611

訃音

▲李海洼(31상학)=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종로 양복점(1916년 창업) 경영주인 李교우가 5월29일 숙환으로 별세. 향년 83세. 경기도 남양주시 선영에 안장.



유족으로는 부인 咸卿溫여사와 5남1녀.

李교우는 普專재학시절 백구부 창단멤버로 당시 경성제대팀을 누르고 조선신궁경기(전국체전전신)에서 우승하는데 주역을 했고 졸업후에는 상과31회 졸업생들의 모임인 3·1회 총무로서 초창기부터 헌신해온 술은 공로자이다. 李교우는 8·15이후 가업인 양복점을 계승, 동기생들만아니라 오가는 교우들의 사랑방 구실을 하기도 했다. ☎(02)733-6216

▲朴正勳(58정외·本會이사)=제15대 국회의원(국민회의·전북 임실 순창)인 朴교우가 5월13일 삼성의료원에서 모친 추영현(78세)상을 입었다. ☎(02)394-6335

▲尹相烈(59교신)=서울은행 명동지점장인 尹교우가 5월12일 부친(윤수한·79세)상을 입었다. 장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양지리 선영. ☎(02)779-2641



재능교육은 어린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습니다.

재능교육은 자라나는 2세의 꿈과
재능을 소중히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어린이는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를 큰 꿈과
자신감을 지닌 어린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격려와 칭찬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는 끊임없는 격려속에서 자신감을 길러 갑니다.
그리고 어린이의 자신감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자라나는 2세의 꿈과 재능을 소중히 생각하는 재능교육-
재능교육은 어린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며
어린이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재능교육

·본사:(02)3670-0114 ·교육사업부문:(02)923-1132

테크노컴플렉스 완공 6월12일 준공식 예정

1만7백여평에 産·工學동 각 8층 규모 이과대학 준공식 8월30일 : 87% 공정율

안암 자연계캠퍼스에 들어서는 한국산·학·연 종합연구단지가 완공을 바라보고 있다.

당초 2월28일이 완공 예정이였으나 지하주차장 추가공사로 인한 외벽공사 착수지연 및 민원에 따른 발파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완공일자가 5월 30일로 3개월 지연됐다. 준공식은 6월12일 예정이다.

5월31일 현재 연구단지의 공사진척률을 보면 공학동(5천96평에 지하 1층 지상7층) 98%, 산학동(5천6백41평에 지하1층 지상7층) 90%, 지하주차장 90% 등 전체적으로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국제적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고도산업화 정보화시대를 대비하기위해 92년부터 총 연면적 1만7백36평규모로 건립이 추진된 연구단지는 새로운 개념의 산업체·대학·연구기관의 협동체제로 산업체와 참여사의 연구기관이 일부하게 된다.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LG반도체, 포항제철, 삼양사 등이 이미 참여약정을 체결, 연구기관을 설치하게 되며 다른 정보통신 및 전자업체들과도 참여협의가 진행중이다.

한편 테크노컴플렉스 옆 이과대학 신축공사도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8월말께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87%의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다. 시설과 權寧祚과장은 『테크노컴플렉스와 이과대학 준공식은 洪一植총장 취임 2주년이 되는 6월중에 가질 예정이었으나 공사지연으로 인해 각기 조촐한 준공식을 가진후 제대로 실험실이 가동되고 기업체들의 입주가 끝나는 오는 9월말이나 10월초에 대내외적인 개원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4·18 정신을 계승하는 「4·18기념관」 기공식이 5월 30일 학생회관옆서 각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4·18기념관 학생회관옆서 시삽 내년 6월 완공, 4층건물에 전시실등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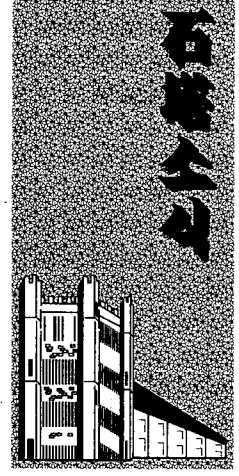
모교는 5월30일 오후 5시30분 학생회관옆에 신축되는 4·18기념관 기공식을 가졌다.

4·18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건립되는 이 기념관에는 4·18관련 자료전시실이 마련된다.

4·18기념관은 연면적 1천1백3평에 지하 2층, 지상2층 규모로 지하 2층은 학생식당과 도서실, 시청각실이, 지하1층은 세미나실과 썬큰가든이, 1층에는 은행과 4·18전시실이 자리하며 2층에는 세미나실 및 학생처 사무실이 위치하게 된다. 산학연구단지를 설계한 金振壽(61건공)교우가 대표로 있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설계를 맡았고 내년 6월께 완공될 예정이다.

이 날 기공식에는 洪一植총장, 崔永翔·金海天 부총장 및 교무위원들과 鄭世永공우회장, 延萬熙 尹在明 李起昌 鄭昇久교우회부회장, 許天九 교우회감사, 韓灝鮮 韓英洙 金浩一 등 제15대 국회의원 교우 및 朴源弘 南宮 晳교우 등이 참석해 시삽했다.

4·18기념관은 그간 명칭 및 공간이용등의 문제로 학교당국과 학생측이 마찰을 거듭했으나, 건축허가 만기일이 5월31일로 다가와 「우선 착공에 합의해 일단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李世榮 원장

생명공학원 2학기 개원 원장에 李世永교수, 전임교수 선정 작업 한창

지난해 12월 14일 국책대학원으로 선정된 생명공학대학원이 지난 5월1일 생명공학원으로 설립되어 체제정비와 운영에 들어갔다.

1개 대학에 1개의 일반대학원만을 허가한다는 현행 교육부 법에 따라 명칭을 「생명공학원」으로 명명했으나 과정은 대학원과 동일하다.

생명공학원 원장에는 李世永(분화학과)교수가, 교학부장에 成河珍(유전공학과)교수, 연구부장에 朴永仁(유전공학과)교수가 실무 업무를 맡아 대학원 전임교수 선정 작업과 기자재 구입및 지원재단설립 등을 한창 추진하고 있다.

이미 교육부로부터 1차 지원금 35억원을 받은 생명공학원은 자연자원대·이과대 공과대 의과대 자연과학대 등 5개 단과대에서 20여개 학과의 통폐합으로 설립이 계획됐으나 전임교수 선정에 있어 일부 교수만이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과에서는 교수들의 전체 참여를 요구하고 나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문제에 대해 成河珍(유전공학과)교수는 『高大의 수준에 비해 자연계열이 낙후돼 있는 실정에서 국책대학원 선정은 「과학 高大」 실현에 구체적인 「실천」이라며 『고대의 전체적인 발전 차원에서 협조해줄 것』을 부탁했다.

오는 2학기부터 원생을 모집하는 생명공학원은 최근 녹지캠퍼스에 부지를 마련했으나 몇 개월동안 각 단과대학들의 이해관계로 부지선정이 늦어졌었다.

金成坤전교우회장 차남 金錫俊 쌍용그룹회장, 발전기금 30억 기증



金錫俊(71경영·右)쌍용그룹회장은 5월9일 고대 재단이사장실에서 蔡汶植이사장(左)에게 30억원의 학교발전기금을 전달했다.

安岩병원에 「感恩塔」제막

高大의대는 5월18일 안암동 의대 건물 동북편 기슭 동산에서 해부용으로 시신을 기증한 사람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感恩塔」제막식을 가졌다.



「정보통신 최고경영자과정」 개설 경영대학원, 2학기 개강

경영대학원(원장 池淸)은 96년도 2학기부터 국내 최초로 기업과 사회의 정보화를 주도할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고경영자 정보통신과정을 개설한다.

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경영인력의 함양을 목표로 신설된 정보통신과정은 경영혁신을 근간으로 한 정보화교육, 영상장의실을 활용한 세계화 교육, 세계 유명 정보통신 업체와의 산학협동프로그램을 특징으로 한다.

6월 중순 40명이내의 수강생을 모집하는 정보통신과정의 지원자격은 공사기업의 최고 경영자 및 임원이어야 하며 컴퓨터실력, 경영혁신, 컴퓨터를 이용한 의사결정, 정보통신기술, 세계화 경영, 정보통신산업 정책의 6개 교과로 강의가 진행된다. 한편 경영대학원은 최고경영자 정보통신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5월20일 한국 마이크로 소프트, 한국IBM, 한국휴렛팩커드 등과 상호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나는 완전한 한국인 24%" "올림픽때 미국 응원 31%"

민족문화硏, 재미교포 1천2백명 설문조사

재미교포 2세의 4명 가운데 1명만이 자신을 「완전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족의 결혼상대가 한국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2세는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高大 민족문화연구소(소장 金興圭)가 재미교포 1천2백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에 실시한 「재미 한인의 언어, 문화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2세응답자 4백32명 가운데 24.1%가 자신을 「1백%한국인」으로 생각한다고 대답, 교포1세의 69.7%와 큰 차이를 보였다. 또 1.5세는 응답자의 36.1%가 이같이 생각해 차세대로 내려갈수록 민족정체성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96애틀란타올림픽에서 한국과 미국팀중 어느쪽을 응원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1.5세의 11.8%, 2세의 31.3%가 「전적으로 미국을 응원하거나 한국보다 미국을 더 응원하겠다」고 응답했다.

建工교우회, 科에 2천만원 기증

朴秉璐명예교수, 회갑연 축의금 1천만원 포함

이 기탁금은 同科 朴秉璐명예교수가 지난 85년 회갑연과 90년 정년퇴임때 들어온 축의금을 교우회에 기탁한 것과 지난해 11월 同科30주년 기념식때 조성된 1천1백만원이다.

朴명예교수의 뜻에 따라 도서구입비로 전달된 이 기금은 「건축구조」등의 전공분야 서적과 기타 서적구입비로 쓰이게 된다.

『高麗大學校九十年誌』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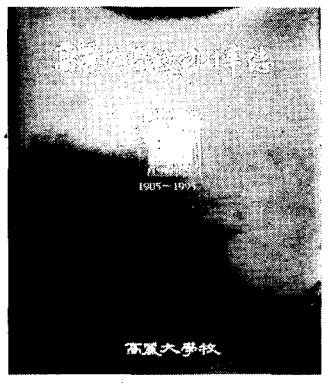
「普專」「高大」「中興高大」 3시기 나눠 서술

「高大60年誌」(고려대학교출판부, 1965)와 「高麗大學校 70年誌」(고려대학교출판부, 1975)에 이어 출간된 이 책(고려대학교출판부·양장본·941면)은 60년지의 시대사적 관점과 70년지의 문제사적 관점을 통합적으로 조합하여 「겨레의 정성 보성전문학교(1905~1945)」, 「자유·정의·진리의 고려대학교(1946~1970)」, 「中興高大의 도약과 전환(1971~1995)」등의 3시기 3편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보성전문이 창립된 舊韓末의 한국사회는 근대사에서 유래없는 체계적 위기에 봉착한 시기로 나라의 自主權 수호와 近代化 추진이라는 이중의 책무를 부여받았다. 보성전문은 이 양자의 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고 출범한 한국최초의 근대 고등교육기관이다. 民族史 최대의 시련기에 태어난 이 학교의 역사가 汚辱과 榮光, 絶望과 歡喜의 기록들로 채워져 있음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보성전문과 고려대학교의 역사는 그것이 곧 한국교육사요 독립투쟁사요 민주화 운동사로서 그 자체로 이미 한국 近代史의 일부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洪一植총장은 발간사에서 『우리는 이 기록들이 보여주는 의미를 소중히 계승하는 한편, 우리가 앞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될 역사의 구도를 설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제1편 「겨레의 정성 普成專門學校」에서는 보전의 탄생, 일제의 탄압과 보전, 재단의 설립과 캠퍼스이전, 仁村 金性洙와 보전의 관계가 서술돼 있고 제2편 「자유 정의 진리의 高麗大學校」에서는 고려대학교의 출범부터 반독재 투쟁의 선봉에섰던 4.18의거를 비롯 5.16군사정권하의 학사와 학생운동이 기록돼 있다. 제3편 「中興高大의 도약과 전환」편에서는 우석학원의 병합과 의과대학의 출범 등 종합대학체제 확립과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유신체제에의 항거, 제2캠퍼스 瑞倉의 출범, 광주민중항쟁과 학원자율화 조치, 녹지캠퍼스의 조성과 의과대학의 발전, 6.10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을 비롯, 최근의 한국産·學·硏 종합연구단지의 설립추진, 金相万·金相浹의 별세와 이사진 개편, 「바른교육·큰사람만들기」교육선언과 제2의 건학운동 등 母校 역사 90년의 생애가 연대기적으로 기록돼 있다. 또한 교우회 90년의 발자취도 함께 수록됐다.



"克日은 그들의 속성부터 알아야…"

베스트셀러 『일본이야기』펴낸 金鉉球교수



국외자들을 어김없이 혼란에 빠뜨리는 일본인의 이중성과 집단의식 등의 연원을 파헤친 책이 요즘 서점가에 베스트 셀러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바로 高大역사교육학과 金鉉球(65사학)교수. 金교수는 『한국과 일본은 경계와 협력의 관계라며 그들의 사고와 행동이 어디서 유래하는지 알아야 관계의 해답도 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동안 일본에 대한 연구가 피상적이고 현상적인 모습을 밝히는데 그친 반면 金교수는 이 책에서 일본인의 모습을 평면적으로만 서술하지않고 역사적 유래와 형성과정을 추적, 일본인의 속성을 총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 중 일본인을 구분짓는 큰 특징인 이중성, 직업의식, 집단의식 등에 대해서 金교수는 다음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5~6세기부터 생긴 氏姓制 전통과 武家사회의 전통이 일본인의 특성을 구분짓게 했습니다. 가령 「본심에서 하는 말(本音)」과 「그냥하는 말(建前)」이 전혀 다른 일본인의 이중성은 1백여명의 영주가 생사를 걸고 싸우던 전국시대에서 비롯됐습니다. 자기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살아남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유명한 럭비스타가 가업인 유리가게를 하기위해 은퇴를 감행하는 일본인의 직업관은 고대 씨성제사회에서 형성된 직무 및 직업의 세습전통에서 나왔습니다.』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8년간 일본고대사를 전공한 뒤 모교인 高大에서 12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 金교수는 『과거 일본과의 관계로 감정을 내세워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잃어버려서도, 현재의 협력관계만을 생각해서 경계의 상대국임을 잊어서도 안된다』며 『그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李順子 기자〉

출판가 화제의 高大人

"인간 특유 회복력으로 지상낙원 이룬다"

소설 「터」작가 孫錫佑교우 「지구파멸」예언서 펴내

풍수지리에 관한 소설 「터」로 유명한 육관 孫錫佑(30경연)교우가 최근 『지구의 파멸 인류의 멸종』이란 예언서를 펴냈다.

「육관도사의 대예언」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서 저자는 정감록, 격암유록, 황도진경 등 우리나라 전래의 비기와 도참서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민족의 운명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 「예언」하고 있다.

앞으로 인류는 수많은 고난에 직면하겠지만 특유의 회복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속 번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孫교우의 결론이다.

孫교우는 『서양의 로스트라다무스라는 예언자를 위시해서 서양 종교들 모두가 1999년 7월 지구가 파멸하고 인류가 멸종한다고 했으나 이는 터무니 없는 말』이라며 『인류는 앞으로 8만에서 10만년 동안 대운이 있다』고 말했다.

孫교우는 이 책 마지막에서 『인간이 서양철학인 상극의 철학(상대가 망하는 것이 내가 잘된다는 철학)에 젖었을 때 큰 재앙을 당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철학인 상생철학 즉, 고루살이 철학이 세계인류가 나아갈 철학』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신간 안내

『아름다운 가난』

范大錞(50영문)교우 지음

전남대학 명예교수인 范大錞(50영문)교우가 『絶句詩集-아름다운 가난』을 발간했다.

시형식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연구해와 93년에는 「起承轉結」이란 시집을 발표했던 范교우는 짧은 시형식을 더욱 정형화해서 8행 8음보20음절의 형식을 창안 개발하기도 했다.

이 시집은 세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째는 范교우의 어린 시절인 1940년 전후 가난했던 세계이고, 둘째부분은 잃어버린 초현실적 인식을, 세째부분에서는 황혼에 든 한 사람의 고독과 극복을 그리고 있다. 〈문학예술刊·4×6판·175면·3천5백원〉

『韓半島 軍事問題의 理解』

柳仁澤(62법학)교우 지음

『한반도 문제는 본질적으로 이데올로기 문제이면서 군사문제라는 성격을 지닌다. 즉, 군사문제는 남북한 갈등주조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남북분단과 통일의 도정은 군사문제로 출발해서 군사문제의 해결과 함께 마감될 것이다』라고 서문을 통해 말한 통일원 회담협력관 柳仁澤(62법학)교우가 쓴 한반도 군사문제 해설서.

柳교우(本報편집위원)는 통일원 상임연구위원, 정치·군사담당관, 통일연수원교수, 조사연구실 연구관, 정보분석실 분석관, 남북회담사무국 기획부장 등을 두루 역임한 남북문제 전문가로서 그동안 실무를 맡으면서 직시한 「한반도 군사문제의 현실과 미래」 「남북한 군비통제의 모색」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모두 2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한·미 군사지휘관계의 변천과정」, 「한미 안보협력체제」, 「한미 상호 방위조약」, 「유엔사 및 정전기구」 등을 살피면서 「한반도 핵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북한의 군사조직·제도·능력」등을 고찰하여 「남북한 군비통제를 위한 단계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법문사刊·신국판·410면·1만4천원〉

『바이칼 호수와 달빛』

具尙書(63법학)교우 지음

이 책은 前서울시설관리공단 상임감사인 具尙書(63법학)교우가 하이텔게시판 공개자료실 및 문학동인회 이야기나라와 글나래에 늑대와 인간 섹스라는 제목으로 현재 올려 있는 글을 구성과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엮은 것.

1만년전 바이칼 호수 원시인들의 섹스 그리고 한반도 이동 이야기인 이 책은 상중하 3권이 발간될 예정이며 일본 리프트 서브와 피시밴, 인터넷에 올리기 위한 번역작업도 추진 중이다. 〈도서출판 문경刊·신국판·372면·7천원〉

月例講座



◇ 高柄翊 전서울대총장

"「실크로드」서 우리 문화유적 다수 발굴"

제131회 월례강좌가 5월31일 오전 11시30분부터 종로 교우회관 대회의실에서 원로교수 1백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월례강좌 柳時東위원장은 다음달 강좌의 개최장소를 교우들의 표결에 붙인 결과 69표대 48표로 새 교우회관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다음달에는 월례강좌 개설 11주년을 맞은 기념식 및 개근교우 시상식이 개최된다.

다음은 高柄翊 전서울대총장의 「실크로드와 한국」을 주제로 강연한 내용.

『실크로드란 명칭은 독일 학자가 중국교통로를 조사하다 발견한 것으로 중국과 서쪽나라와의 연결통로로 이 길을 통해 중국의 비단이 서구에 전해졌다하여 이름지어졌다. 즉, 이 길은 동서문화의 중요 교통로로 중국비단이 로마까지 전달된데서 유래한다. 실크로드는 시발점에서 종착역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중국 서안에서부터 세계지붕이라 일컬어지는 파미르고원을 지나 인도와 중동, 로마쪽으로 가는 여러 길이 있다.

동서문화교류의 중요한 육로교통로인 이 실크로드는 기후의 건조와 사람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여서 그 당시의 문물이 보존 그대로 발견되곤 한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발견된 것으로는 신라 승려 「혜초의 왕오천축국전」과 고구려출신의 「거선지장군이 파미르고원 넘어 이슬람 군대와 싸운 전터」가 발견됐다. 근래에 발굴된 것으로는 러시아 고고학자들이 우즈베크공화국 사마르칸트에서 벽화그림 발견을 들 수 있다. 이 벽화에는 깃에 새깃을 단 사신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 모습이 고구려와 신라 사람들의 풍습과 똑같아 러시아인들은 까레이스기라 했다. 이 처럼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에서 시작해서 60년대 사마르칸트의 벽화까지 발견된 것을 볼때 이 실크로드는 남의 땅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옛부터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실크로드는 단순히 고대 문화교류의 낭만적인 길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유적이 발굴된 곳으로 우리나라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校友會 入金現況

▶ 누계 : 3천6백42만원
〈96년 4월22일~5월21일〉

본 교

〈회장단=6백60만원〉
정석용 46 정진우 47 구자회

〈이사=3천5백40만원〉
이양섭 56 김정렬 53 정석모 51 김명호 48 정세영
이동건 1 김기호 54 이태희 52 신상철
이원교 63 김기호 54 이태희 52 신상철
최태안 1 김정렬 53 정석모 51 김명호 48 정세영
김정렬 53 정석모 51 김명호 48 정세영
김정렬 53 정석모 51 김명호 48 정세영

이임상 52 법
노종현 53 법
박대식 53 법
얼홍섭 53 법
이문표 53 법
이원우 53 법
황옥택 53 법
김재홍 54 법
김한신 54 법
노춘희 54 법
손원태 54 법
이홍재 54 법
진국홍 54 법
전인조 55 법
하봉수 55 법
강오훈 56 법
김광의 56 법
김무호 56 법
김승기 56 법
문형주 56 법
배혜용 56 법
신승욱 56 법
윤경웅 56 법
이명길 56 법
이선종 56 법
이택석 56 법
최상철 56 법
강종우 57 법
김영대 57 법
문형정 57 법
박찬근 57 법
이기성 57 법
이선용 57 법
최병태 57 법
홍경숙 57 법
김하섭 58 법
김국련 58 법
남상철 58 법
박정의 58 법
백길구 58 법
심응섭 58 법
유재열 59 법
백홍기 59 법
김소영 59 법
홍원전 58 법
조원현 58 법
정승명 58 법
전병철 58 법
이장규 58 법
이상돈 58 법
이상섭 58 법
정규우 59 법
이진강 59 법
윤 전 59 법
김영일 60 법

손평업 60 법
심일봉 60 법
이성자 60 법
이영대 53 법
이착구 53 법
박달용 53 법
박홍운 53 법
유수원 53 법
김용제 54 법
김탁규 54 법
김현수 54 법
권영준 61 법
백찬기 61 법
이영복 61 법
조규원 61 법
정성철 61 법
최병지 60 법
이정호 60 법
김재만 62 법
김상모 63 법
최원일 62 법
주선회 62 법
전종신 62 법
오상직 62 법
김재만 62 법
홍세표 61 법
노기춘 63 법
이명식 63 법
백석기 63 법
이찬근 63 법
조주오 63 법
한성우 66 법
이정수 66 법
김수만 67 법
서대교 67 법
오종규 67 법
정태선 64 법
윤종태 64 법
박동석 64 법
김창덕 64 법
김우상 64 법
진영호 64 법
나명오 65 법
황광승 65 법
김지철 66 법
문춘목 66 법
이창흡 66 법
김시경 63 법
김규만 63 법
예병관 63 법
이종수 63 법
이해성 63 법
고수길 64 법
이재윤 64 법
조현규 64 법
최재희 64 법
박기록 65 법
강기중 66 법
남춘현 66 법
이건모 66 법
권택상 67 법
박명호 67 법
신희식 67 법
이언희 67 법
김산부 68 법
오양환 68 법
이상호 68 법
이창우 68 법
정진호 68 법
장광환 69 법
박주하 70 법
유문봉 70 법
최대식 70 법
양분동 71 법
최용원 71 법
김분배 72 법
장지수 72 법
공재한 73 법
아병헌 73 법
최병한 73 법
김성환 74 법

신지현 60 법
윤성윤 60 법
이수납 60 법
정상용 60 법
최 창 60 법
김용화 61 법
이만철 61 법
이재곤 61 법
정순일 61 법
현성우 61 법
김연태 62 법
김홍적 62 법
이근동 62 법
정종오 62 법
채성위 62 법
홍종욱 62 법
김시경 63 법
김낙만 63 법
도규만 63 법
김상욱 63 법
이종수 63 법
이해성 63 법
고수길 64 법
김학주 64 법
김창덕 64 법
박동석 64 법
윤종태 64 법
정태선 64 법
진영호 64 법
나명오 65 법
황광승 65 법
김지철 66 법
문춘목 66 법
이창흡 66 법
이건모 66 법
남춘현 66 법
강기중 66 법
박기록 65 법
최재희 64 법
조현규 64 법
이재윤 64 법
성유기 64 법
김학주 64 법
조수길 64 법
이해성 63 법
이종수 63 법
예병관 63 법
김시경 63 법
김규만 63 법
도규만 63 법
홍종욱 62 법
채성위 62 법
정종오 62 법
이근동 62 법
김홍적 62 법
김연태 62 법
현성우 61 법
정순일 61 법
이재곤 61 법
김용화 61 법
최 창 60 법
이수납 60 법
윤성윤 60 법
박중엽 60 법

문석호 74 법
유성운 74 법
최중원 74 법
설인규 75 법
오상기 75 법
전성수 75 법
이재덕 75 법
엄장섭 75 법
허정회 74 법
이상훈 74 법
박진홍 74 법
김혜정 88 법
이성호 88 법
조상현 88 법
김목인 52 행정
양삼용 52 행정
이봉식 53 행정
김길분 53 행정
정연규 52 행정
이종건 54 행정
윤종윤 54 행정
김화렬 54 행정
김상열 54 행정
이채우 53 행정
이수웅 62 경영
김순영 63 경영
김종진 63 경영
박영업 63 경영
이석훈 64 경영
김길용 64 경영
김정수 54 행정
김광원 54 행정
인승원 53 행정
서태형 53 행정
정진환 52 행정
장기두 52 행정
이민복 52 행정
김경제 52 행정
이한도 88 법
노호성 88 법

김석조 60 법
심일봉 60 법
이성자 60 법
이영대 53 법
이착구 53 법
박달용 53 법
박홍운 53 법
유수원 53 법
김용제 54 법
김탁규 54 법
김현수 54 법
권영준 61 법
백찬기 61 법
이영복 61 법
조규원 61 법
정성철 61 법
최병지 60 법
이정호 60 법
김재만 62 법
김상모 63 법
최원일 62 법
주선회 62 법
전종신 62 법
오상직 62 법
김재만 62 법
홍세표 61 법
노기춘 63 법
이명식 63 법
백석기 63 법
이찬근 63 법
조주오 63 법
한성우 66 법
이정수 66 법
김수만 67 법
서대교 67 법
오종규 67 법
정태선 64 법
윤종태 64 법
박동석 64 법
김창덕 64 법
김우상 64 법
진영호 64 법
나명오 65 법
황광승 65 법
김지철 66 법
문춘목 66 법
이창흡 66 법
이건모 66 법
남춘현 66 법
강기중 66 법
박기록 65 법
최재희 64 법
조현규 64 법
이재윤 64 법
성유기 64 법
김학주 64 법
조수길 64 법
이해성 63 법
이종수 63 법
예병관 63 법
김시경 63 법
김규만 63 법
도규만 63 법
홍종욱 62 법
채성위 62 법
정종오 62 법
이근동 62 법
김홍적 62 법
김연태 62 법
현성우 61 법
정순일 61 법
이재곤 61 법
김용화 61 법
최 창 60 법
이수납 60 법
윤성윤 60 법
박중엽 60 법

김혜정 88 법
이성호 88 법
조상현 88 법
김목인 52 행정
양삼용 52 행정
이봉식 53 행정
김길분 53 행정
정연규 52 행정
이종건 54 행정
윤종윤 54 행정
김화렬 54 행정
김상열 54 행정
이채우 53 행정
이수웅 62 경영
김순영 63 경영
김종진 63 경영
박영업 63 경영
이석훈 64 경영
김길용 64 경영
김정수 54 행정
김광원 54 행정
인승원 53 행정
서태형 53 행정
정진환 52 행정
장기두 52 행정
이민복 52 행정
김경제 52 행정
이한도 88 법
노호성 88 법

문양길 61 경영
신현주 61 경영
윤창호 61 경영
이부용 61 경영
조광해 61 경영
강병호 62 경영
김일웅 62 경영
박정주 62 경영
김부호 63 경영
김인채 63 경영
정연동 63 경영
성기납 64 경영
안상철 64 경영
이석훈 64 경영
현봉길 64 경영
길용운 65 경영
문원국 65 경영
유재현 65 경영
김영규 66 경영
신춘수 66 경영
윤재원 66 경영
이동중 66 경영
이장로 66 경영
조용상 66 경영
박근휴 67 경영
송재윤 67 경영
오상창 67 경영
김완철 68 경영
박항용 68 경영
실봉욱 68 경영
정홍태 68 경영
권영만 69 경영
조용태 69 경영
김은영 69 경영
김일웅 62 경영
박정주 62 경영
길부호 63 경영
장경자 63 경영
조동세 63 경영
안희민 63 경영
이강훈 63 경영
박춘관 61 경영

조성환 51 상
조해연 51 상
박중엽 60 법
신지현 60 법
윤성윤 60 법
최중원 74 법
설인규 75 법
오상기 75 법
전성수 75 법
이재덕 75 법
엄장섭 75 법
허정회 74 법
이상훈 74 법
박진홍 74 법
김혜정 88 법
이성호 88 법
조상현 88 법
김목인 52 행정
양삼용 52 행정
이봉식 53 행정
김길분 53 행정
정연규 52 행정
이종건 54 행정
윤종윤 54 행정
김화렬 54 행정
김상열 54 행정
이채우 53 행정
이수웅 62 경영
김순영 63 경영
김종진 63 경영
박영업 63 경영
이석훈 64 경영
김길용 64 경영
김정수 54 행정
김광원 54 행정
인승원 53 행정
서태형 53 행정
정진환 52 행정
장기두 52 행정
이민복 52 행정
김경제 52 행정
이한도 88 법
노호성 88 법

김석조 60 법
심일봉 60 법
이성자 60 법
이영대 53 법
이착구 53 법
박달용 53 법
박홍운 53 법
유수원 53 법
김용제 54 법
김탁규 54 법
김현수 54 법
권영준 61 법
백찬기 61 법
이영복 61 법
조규원 61 법
정성철 61 법
최병지 60 법
이정호 60 법
김재만 62 법
김상모 63 법
최원일 62 법
주선회 62 법
전종신 62 법
오상직 62 법
김재만 62 법
홍세표 61 법
노기춘 63 법
이명식 63 법
백석기 63 법
이찬근 63 법
조주오 63 법
한성우 66 법
이정수 66 법
김수만 67 법
서대교 67 법
오종규 67 법
정태선 64 법
윤종태 64 법
박동석 64 법
김창덕 64 법
김우상 64 법
진영호 64 법
나명오 65 법
황광승 65 법
김지철 66 법
문춘목 66 법
이창흡 66 법
이건모 66 법
남춘현 66 법
강기중 66 법
박기록 65 법
최재희 64 법
조현규 64 법
이재윤 64 법
성유기 64 법
김학주 64 법
조수길 64 법
이해성 63 법
이종수 63 법
예병관 63 법
김시경 63 법
김규만 63 법
도규만 63 법
홍종욱 62 법
채성위 62 법
정종오 62 법
이근동 62 법
김홍적 62 법
김연태 62 법
현성우 61 법
정순일 61 법
이재곤 61 법
김용화 61 법
최 창 60 법
이수납 60 법
윤성윤 60 법
박중엽 60 법

김길동조 70 행정
이영찬 70 행정
이유재 70 행정
김용순 71 행정
최명희 71 행정
윤관식 72 행정
이우승 73 행정
주재삼 73 행정
일홍래 74 행정
김상분 75 행정
이후재 75 행정
유호상 76 행정
김길원 77 행정
김길동관 77 행정
이종태 75 행정
이병의 74 행정
한상섭 74 행정
이완휘 71 행정
강승탁 72 행정
윤윤만 72 행정
이영찬 70 행정
강명국 71 행정
이완휘 71 행정
김용순 71 행정
이유재 70 행정
강현용 70 행정

조성환 51 상
조해연 51 상
홍석선 51 상
박춘관 61 경영
안희민 61 경영
이강훈 61 경영
장경자 61 경영
조동세 61 경영
박정주 62 경영
김일웅 62 경영
박종일 63 경영
이영부 63 경영
김부호 63 경영
박정수 62 경영
김길부 63 경영
장경자 63 경영
조동세 63 경영
김인채 63 경영
정연동 63 경영
성기납 64 경영
김길웅 64 경영
이석훈 64 경영
현봉길 64 경영
길용운 65 경영
문원국 65 경영
유재현 65 경영
김영규 66 경영
신춘수 66 경영
윤재원 66 경영
이동중 66 경영
이장로 66 경영
조용상 66 경영
박근휴 67 경영
송재윤 67 경영
오상창 67 경영
김완철 68 경영
박항용 68 경영
실봉욱 68 경영
정홍태 68 경영
권영만 69 경영
조용태 69 경영
김은영 69 경영
김일웅 62 경영
박정주 62 경영
길부호 63 경영
장경자 63 경영
조동세 63 경영
안희민 63 경영
이강훈 63 경영
박춘관 61 경영

김길조 70 행정
이영찬 70 행정
이유재 70 행정
김용순 71 행정
최명희 71 행정
윤관식 72 행정
이우승 73 행정
주재삼 73 행정
일홍래 74 행정
김상분 75 행정
이후재 75 행정
유호상 76 행정
김길원 77 행정
김길동관 77 행정
이종태 75 행정
이병의 74 행정
한상섭 74 행정
이완휘 71 행정
강승탁 72 행정
윤윤만 72 행정
이영찬 70 행정
강명국 71 행정
이완휘 71 행정
김용순 71 행정
이유재 70 행정
강현용 70 행정

조성환 51 상
조해연 51 상
홍석선 51 상
박춘관 61 경영
안희민 61 경영
이강훈 61 경영
장경자 61 경영
조동세 61 경영
박정주 62 경영
김일웅 62 경영
박종일 63 경영
이영부 63 경영
김부호 63 경영
박정수 62 경영
김길부 63 경영
장경자 63 경영
조동세 63 경영
김인채 63 경영
정연동 63 경영
성기납 64 경영
김길웅 64 경영
이석훈 64 경영
현봉길 64 경영
길용운 65 경영
문원국 65 경영
유재현 65 경영
김영규 66 경영
신춘수 66 경영
윤재원 66 경영
이동중 66 경영
이장로 66 경영
조용상 66 경영
박근휴 67 경영
송재윤 67 경영
오상창 67 경영
김완철 68 경영
박항용 68 경영
실봉욱 68 경영
정홍태 68 경영
권영만 69 경영
조용태 69 경영
김은영 69 경영
김일웅 62 경영
박정주 62 경영
길부호 63 경영
장경자 63 경영
조동세 63 경영
김인채 63 경영
정연동 63 경영
성기납 64 경영
김길웅 64 경영
이석훈 64 경영
현봉길 64 경영
길용운 65 경영
문원국 65 경영
유재현 65 경영
김영규 66 경영
신춘수 66 경영
윤재원 66 경영
이동중 66 경영
이장로 66 경영
조용상 66 경영
박근휴 67 경영
송재윤 67 경영
오상창 67 경영
김완철 68 경영
박항용 68 경영
실봉욱 68 경영
정홍태 68 경영
권영만 69 경영
조용태 69 경영
김은영 69 경영
김일웅 62 경영
박정주 62 경영
길부호 63 경영
장경자 63 경영
조동세 63 경영
김인채 63 경영
정연동 63 경영
성기납 64 경영
김길웅 64 경영
이석훈 64 경영
현봉길 64 경영
길용운 65 경영
문원국 65 경영
유재현 65 경영
김영규 66 경영
신춘수 66 경영
윤재원 66 경영
이동중 66 경영
이장로 66 경영
조용상 66 경영
박근휴 67 경영
송재윤 67 경영
오상창 67 경영
김완철 68 경영
박항용 68 경영
실봉욱 68 경영
정홍태 68 경영
권영만 69 경영
조용태 69 경영
김은영 69 경영
김일웅 62 경영
박정주 62 경영
길부호 63 경영
장경자 63 경영
조동세 63 경영
김인채 63 경영
정연동 63 경영
성기납 64 경영
김길웅 64 경영
이석훈 64 경영
현봉길 64 경영
길용운 65 경영
문원국 65 경영
유재현 65 경영
김영규 66 경영
신춘수 66 경영
윤재원 66 경영
이동중 66 경영
이장로 66 경영
조용상 66 경영
박근휴 67 경영
송재윤 67 경영
오상창 67 경영
김완철 68 경영
박항용 68 경영
실봉욱 68 경영
정홍태 68 경영
권영만 69 경영
조용태 69 경영
김은영 69 경영

김영수(72경영) 이규범(72경영) 조승식(72경영) 황종우(72경영) 박성수(73경영) 정봉채(73경영) 박유상(74경영) 오수영(74경영) 이찬근(74경영) 김상철(75경영) 나금두(75경영) 정주련(75경영) 양삼문(76경영) 임완순(76경영) 홍순탁(76경영) 김영진(77경영) 이오규(77경영) 김언수(78경영) 이주배(78경영) 황순하(78경영) 남동관(79경영) 김남부(80경영) 홍홍식(80경영) 윤여문(82경영) 이강희(82경영) 장진수(82경영) 김진국(81경영) 윤귀만(81경영) 이용훈(81경영) 홍준의(81경영) 김영석(83경영) 이명수(83경영) 조명희(83경영) 김민권(84경영) 박태호(84경영) 신송경(84경영) 조중석(84경영) 박계원(85경영) 변동욱(85경영) 이두희(85경영) 주용진(85경영) 한두홈(85경영) 김동건(86경영) 박재연(86경영) 유종용(86경영) 임태형(86경영) 정동춘(86경영) 정종갑(86경영) 김재중(87경영) 신희식(87경영) 최상용(87경영) 최지영(87경영)

성기동(72경영) 정우성(72경영) 허진수(72경영) 김상인(73경영) 유성민(73경영) 최영권(73경영) 배영환(74경영) 이윤수(74경영) 계찬민(75경영) 김형일(75경영) 윤상옥(75경영) 이동천(77경영) 윤원종(77경영) 신종섭(77경영) 김태형(76경영) 이호복(77경영) 조계성(78경영) 유정준(78경영) 이기천(76경영) 주대준(76경영) 권혁창(77경영) 이동천(77경영) 김창섭(79경영) 정찬헌(80경영) 유택근(82경영) 이상철(82경영) 진기천(82경영) 안성열(81경영) 이경호(81경영) 정병철(81경영) 김상만(83경영) 서강미(83경영) 이영한(83경영) 김기태(84경영) 김영진(84경영) 이규윤(84경영) 배영석(84경영) 이상현(86경영) 백운선(86경영) 김정욱(86경영) 고현규(86경영) 김정규(87경영) 조준환(87경영) 김재욱(87경영) 최찬규(87경영)

한용철(87경영) 고경남(88경영) 권순렬(88경영) 배재민(88경영) 윤여철(88경영) 장성수(88경영) 정종원(88경영) 조성관(88경영) 문종동(71무역) 임정식(71무역) 김원근(72무역) 박주동(73무역) 배 경(73무역) 김순대(81무역) 김규동(81무역) 김상진(86무역) 남석희(84무역) 김규웅(87무역) 류재봉(87무역) 정태조(88무역)

황경남(87경영) 곽미창(88경영) 서계원(88경영) 이봉윤(88경영) 장형수(88경영) 홍동철(88경영) 호동철(88경영) 이은집(59국문) 김상훈(60국문) 임봉재(62국문) 윤석달(65국문) 장투이(67국문) 김성기(69국문) 이일신(69국문) 이승호(70국문) 이영자(71국문) 조병철(59국문) 서우석(59국문) 조일남(58국문) 김장환(58국문) 유화웅(57국문) 고봉자(57국문) 합영대(67교육)

박용석(65교육) 이상납(59교육) 김정자(57국문) 김기완(58국문) 조석구(58국문) 지장상(58국문) 홍성택(58국문) 강혜숙(71국문) 김진태(70국문) 강신길(66국문) 최종석(64국문) 최준인(58국문) 조일남(58국문) 김장환(58국문)

〈문과대학〉

전성원(40 문) 염사홈(41 문) 정규택(40 문) 정학숙(43국문) 김영태(49국문) 신창순(48국문) 김원행(49국문) 노양석(51국문) 정용규(51국문) 박재삼(52국문) 이규황(54국문) 박노춘(53국문) 선락규(80노문) 실홍석(83노문) 구완모(81노문) 성동기(85노문) 안효철(61노문) 이광용(62동문) 최승호(87노문) 최성우(74노문) 조해우(88국문) 문선우(72노문) 유광호(88국문) 나신하(87국문) 조근묵(86국문) 유영권(85국문) 길홍배(83국문) 주용원(76국문) 윤진성(80국문) 장호현(72국문) 이재양(71국문) 유승호(70국문) 이일신(69국문) 이영자(62국문) 서우석(59국문) 조병철(59국문) 유화웅(57국문) 고봉자(57국문) 합영대(67교육)

장재연(87불문) 신소철(88불문) 송우섭(48사업) 서상영(49사업) 전원현(49사업) 진동식(50사업) 양경선(51사업) 김대현(53사업) 이은호(54사업) 서법석(55사업) 이병호(56사업) 이보용(58사업) 박용록(58사업) 최정환(57사업) 이태준(57사업) 신상수(57사업) 홍수자(56사업) 이형인(56사업) 이진주(59사업) 황대현(59사업) 이천광(60사업) 박영록(61사업) 최정화(61사업) 신정희(62사업) 송선희(62사업) 이영준(62사업) 이철영(60사업) 김성만(60사업) 태인기(59사업) 안정식(59사업) 서경석(58사업) 길종원(58사업) 임부원(57사업) 왕권식(57사업) 방응덕(57사업) 김부인(57사업) 정운희(56사업) 이태화(56사업) 정종국(54사업) 차종석(53사업) 홍지형(51사업) 김상열(51사업) 이순영(50사업) 이일선(49사업) 박병희(49사업) 일은정(88불문) 이재성(87불문)

김원일(81사학) 김원봉(82사학) 조명동(83사학) 김원룡(83사학) 박병선(66영문) 이대기(66영문) 최건호(66영문) 이해연(66영문) 박병진(66영문) 이상국(73사회) 이의순(70사회) 김진원(69사회) 윤 경(65사회) 도광구(64사회) 김선일(81사학) 박병덕(87동문) 박병택(87동문) 김수남(83동문) 박보영(77사회) 이홍종(78사회) 김선섭(76사회) 김정성(77사회) 김장섭(76사회) 고정흠(75사회) 정동열(83사학) 류노현(84사학) 이병택(60사회) 이향숙(61사회) 김광일(62사회) 이명로(75사회) 박범숙(79사회) 이준형(78사회) 마철현(77사회) 김교찬(76사회) 장순용(74사회) 김성곤(73사회) 이명철(71사회) 박기홍(69사회) 하태열(68사회) 임은실(67사회) 민혜인(67사회) 황재문(65사회) 윤진원(65사회) 김상준(65사회) 김익태(64사회) 이영준(62사회) 송신희(62사회) 오정소(61사회) 이철영(60사회) 김성만(60사회) 태인기(59사회) 안정식(59사회) 서경석(58사회) 길종원(58사회) 임부원(57사회) 왕권식(57사회) 방응덕(57사회) 김부인(57사회) 정운희(56사회) 이태화(56사회) 정종국(54사회) 차종석(53사회) 홍지형(51사회) 김상열(51사회) 이순영(50사회) 이일선(49사회) 박병희(49사회) 일은정(88불문) 이재성(87불문)

김선일(81사학) 김원룡(82사학) 조명동(83사학) 김원룡(83사학) 박병선(66영문) 이대기(66영문) 최건호(66영문) 이해연(66영문) 박병진(66영문) 이상국(73사회) 이의순(70사회) 김진원(69사회) 윤 경(65사회) 도광구(64사회) 김선일(81사학) 박병덕(87동문) 박병택(87동문) 김수남(83동문) 박보영(77사회) 이홍종(78사회) 김선섭(76사회) 김정성(77사회) 김장섭(76사회) 고정흠(75사회) 정동열(83사학) 류노현(84사학) 이병택(60사회) 이향숙(61사회) 김광일(62사회) 이명로(75사회) 박범숙(79사회) 이준형(78사회) 마철현(77사회) 김교찬(76사회) 장순용(74사회) 김성곤(73사회) 이명철(71사회) 박기홍(69사회) 하태열(68사회) 임은실(67사회) 민혜인(67사회) 황재문(65사회) 윤진원(65사회) 김상준(65사회) 김익태(64사회) 이영준(62사회) 송신희(62사회) 오정소(61사회) 이철영(60사회) 김성만(60사회) 태인기(59사회) 안정식(59사회) 서경석(58사회) 길종원(58사회) 임부원(57사회) 왕권식(57사회) 방응덕(57사회) 김부인(57사회) 정운희(56사회) 이태화(56사회) 정종국(54사회) 차종석(53사회) 홍지형(51사회) 김상열(51사회) 이순영(50사회) 이일선(49사회) 박병희(49사회) 일은정(88불문) 이재성(87불문)

권혁찬(76사회) 이광현(76사회) 이기정(78사회) 이한원(79사회) 최철호(79사회) 윤재홍(81사회) 이정만(81사회) 유택정(83사회) 박수호(85사회) 박성식(86사회) 이철훈(86사회) 김정한(87서분) 김규정(85서분) 이재학(83서분) 박권선(82서분) 이각형(66심리) 이정기(71심리) 이흥철(75심리) 최재명(79심리) 하권찬(80심리) 권휴추(82심리) 김기풍(84심리) 김우석(87심리) 조희용(88심리) 김용성(57동문) 이국본(57동문) 전태권(58동문) 조재원(58동문) 권혁환(59동문) 최관식(59동문) 신경철(59동문) 차희철(60동문) 김계옥(61동문) 피용진(61동문) 배순연(64동문) 송현수(65동문) 박병진(66동문) 이해연(66동문) 이형돈(67동문) 옹인숙(67동문) 이상현(65심리) 이각형(66심리) 이정기(71심리) 박창진(63심리) 신민영(88서분) 조용한(87서분) 이재학(83서분) 박성식(86사회) 박수호(85사회) 유택정(83사회) 최정만(81사회) 유재홍(81사회) 이한원(79사회) 성기정(78사회) 이광현(76사회) 송영근(76사회)

이원섭(70불문) 정지영(68불문) 김경란(65불문) 이승현(65불문) 홍덕기(68불문) 심재길(72불문) 임현준(80불문) 유미현(81불문) 양소형(64불문) 백효숙(88동문) 길동찬(88동문) 오승화(87동문) 김대영(75동문) 이성호(79동문) 강희석(79동문) 유철한(76동문) 김 민(73동문) 이선북(72동문) 염선애(67동문) 정준기(64동문) 이광용(62동문) 안효철(61동문) 최승호(87노문) 이재양(71국문) 유승호(70국문) 이일신(69국문) 이영자(62국문) 서우석(59국문) 조병철(59국문) 유화웅(57국문) 고봉자(57국문) 합영대(67교육)

박준택(45철) 이재기(48철) 나동정(45철) 박경윤(43철) 이재원(50철) 강찬희(52철) 홍승진(55철) 김정환(56철) 이광수(63교육) 정태성(56철) 김대수(56철) 조종환(54철) 정중화(50철) 차규윤(56영문) 김현숙(56영문) 유경희(55영문) 전종만(54영문) 실홍옥(55영문) 조한옥(55영문) 이성대(45영문) 홍용용(45영문) 김병곤(49영문) 박용봉(49영문) 이원식(49영문) 이제교(50영문) 이종림(51영문) 문봉조(52영문) 김관묵(54영문) 신영희(54영문) 김인화(54영문) 김정진(54영문) 황규복(51영문) 김승기(51영문) 임성기(49영문) 이우정(49영문) 박대현(49영문) 이종기(47영문) 장동옥(45영문) 박삼두(44영문) 정동욱(56국문) 김해룡(56국문) 김선연(56국문) 최명균(55국문) 김분희(56국문) 김은모(56국문) 이달승(56국문) 김근배(66국문) 박노춘(53국문) 이규황(54국문) 박재삼(52국문) 노양석(51국문) 김원행(49국문) 김영태(49국문) 정학숙(43국문) 염사홈(41 문) 전성원(40 문)

김정환(56철) 김대수(56철) 조종환(54철) 정중화(50철) 차규윤(56영문) 김현숙(56영문) 유경희(55영문) 전종만(54영문) 실홍옥(55영문) 조한옥(55영문) 이성대(45영문) 홍용용(45영문) 김병곤(49영문) 박용봉(49영문) 이원식(49영문) 이제교(50영문) 이종림(51영문) 문봉조(52영문) 김관묵(54영문) 신영희(54영문) 김인화(54영문) 김정진(54영문) 황규복(51영문) 김승기(51영문) 임성기(49영문) 이우정(49영문) 박대현(49영문) 이종기(47영문) 장동옥(45영문) 박삼두(44영문) 정동욱(56국문) 김해룡(56국문) 김선연(56국문) 최명균(55국문) 김분희(56국문) 김은모(56국문) 이달승(56국문) 김근배(66국문) 박노춘(53국문) 이규황(54국문) 박재삼(52국문) 노양석(51국문) 김원행(49국문) 김영태(49국문) 정학숙(43국문) 염사홈(41 문) 전성원(40 문)

이광수(63교육) 정태성(56철) 김대수(56철) 조종환(54철) 정중화(50철) 차규윤(56영문) 김현숙(56영문) 유경희(55영문) 전종만(54영문) 실홍옥(55영문) 조한옥(55영문) 이성대(45영문) 홍용용(45영문) 김병곤(49영문) 박용봉(49영문) 이원식(49영문) 이제교(50영문) 이종림(51영문) 문봉조(52영문) 김관묵(54영문) 신영희(54영문) 김인화(54영문) 김정진(54영문) 황규복(51영문) 김승기(51영문) 임성기(49영문) 이우정(49영문) 박대현(49영문) 이종기(47영문) 장동옥(45영문) 박삼두(44영문) 정동욱(56국문) 김해룡(56국문) 김선연(56국문) 최명균(55국문) 김분희(56국문) 김은모(56국문) 이달승(56국문) 김근배(66국문) 박노춘(53국문) 이규황(54국문) 박재삼(52국문) 노양석(51국문) 김원행(49국문) 김영태(49국문) 정학숙(43국문) 염사홈(41 문) 전성원(40 문)

박준택(45철) 이재원(50철) 강찬희(52철) 홍승진(55철) 김정환(56철) 이광수(63교육) 정태성(56철) 김대수(56철) 조종환(54철) 정중화(50철) 차규윤(56영문) 김현숙(56영문) 유경희(55영문) 전종만(54영문) 실홍옥(55영문) 조한옥(55영문) 이성대(45영문) 홍용용(45영문) 김병곤(49영문) 박용봉(49영문) 이원식(49영문) 이제교(50영문) 이종림(51영문) 문봉조(52영문) 김관묵(54영문) 신영희(54영문) 김인화(54영문) 김정진(54영문) 황규복(51영문) 김승기(51영문) 임성기(49영문) 이우정(49영문) 박대현(49영문) 이종기(47영문) 장동옥(45영문) 박삼두(44영문) 정동욱(56국문) 김해룡(56국문) 김선연(56국문) 최명균(55국문) 김분희(56국문) 김은모(56국문) 이달승(56국문) 김근배(66국문) 박노춘(53국문) 이규황(54국문) 박재삼(52국문) 노양석(51국문) 김원행(49국문) 김영태(49국문) 정학숙(43국문) 염사홈(41 문) 전성원(40 문)

박준택(45철) 이재기(48철) 나동정(45철) 박경윤(43철) 이재원(50철) 강찬희(52철) 홍승진(55철) 김정환(56철) 이광수(63교육) 정태성(56철) 김대수(56철) 조종환(54철) 정중화(50철) 차규윤(56영문) 김현숙(56영문) 유경희(55영문) 전종만(54영문) 실홍옥(55영문) 조한옥(55영문) 이성대(45영문) 홍용용(45영문) 김병곤(49영문) 박용봉(49영문) 이원식(49영문) 이제교(50영문) 이종림(51영문) 문봉조(52영문) 김관묵(54영문) 신영희(54영문) 김인화(54영문) 김정진(54영문) 황규복(51영문) 김승기(51영문) 임성기(49영문) 이우정(49영문) 박대현(49영문) 이종기(47영문) 장동옥(45영문) 박삼두(44영문) 정동욱(56국문) 김해룡(56국문) 김선연(56국문) 최명균(55국문) 김분희(56국문) 김은모(56국문) 이달승(56국문) 김근배(66국문) 박노춘(53국문) 이규황(54국문) 박재삼(52국문) 노양석(51국문) 김원행(49국문) 김영태(49국문) 정학숙(43국문) 염사홈(41 문) 전성원(40 문)

김정환(56철) 김대수(56철) 조종환(54철) 정중화(50철) 차규윤(56영문) 김현숙(56영문) 유경희(55영문) 전종만(54영문) 실홍옥(55영문) 조한옥(55영문) 이성대(45영문) 홍용용(45영문) 김병곤(49영문) 박용봉(49영문) 이원식(49영문) 이제교(50영문) 이종림(51영문) 문봉조(52영문) 김관묵(54영문) 신영희(54영문) 김인화(54영문) 김정진(54영문) 황규복(51영문) 김승기(51영문) 임성기(49영문) 이우정(49영문) 박대현(49영문) 이종기(47영문) 장동옥(45영문) 박삼두(44영문) 정동욱(56국문) 김해룡(56국문) 김선연(56국문) 최명균(55국문) 김분희(56국문) 김은모(56국문) 이달승(56국문) 김근배(66국문) 박노춘(53국문) 이규황(54국문) 박재삼(52국문) 노양석(51국문) 김원행(49국문) 김영태(49국문) 정학숙(43국문) 염사홈(41 문) 전성원(40 문)

이광수(63교육) 정태성(56철) 김대수(56철) 조종환(54철) 정중화(50철) 차규윤(56영문) 김현숙(56영문) 유경희(55영문) 전종만(54영문) 실홍옥(55영문) 조한옥(55영문) 이성대(45영문) 홍용용(45영문) 김병곤(49영문) 박용봉(49영문) 이원식(49영문) 이제교(50영문) 이종림(51영문) 문봉조(52영문) 김관묵(54영문) 신영희(54영문) 김인화(54영문) 김정진(54영문) 황규복(51영문) 김승기(51영문) 임성기(49영문) 이우정(49영문) 박대현(49영문) 이종기(47영문) 장동옥(45영문) 박삼두(44영문) 정동욱(56국문) 김해룡(56국문) 김선연(56국문) 최명균(55국문) 김분희(56국문) 김은모(56국문) 이달승(56국문) 김근배(66국문) 박노춘(53국문) 이규황(54국문) 박재삼(52국문) 노양석(51국문) 김원행(49국문) 김영태(49국문) 정학숙(43국문) 염사홈(41 문) 전성원(40 문)

지면 관계상 다 싣지 못한 개인년회비 명단은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월계 : 4천6백51만원
〈96년 4월22일~5월21일〉
▲누계 : 7천73만원
〈96년1월1일~5월21일〉

동대문 상가중 원단·부자재상가 전국 최고점포 시세 8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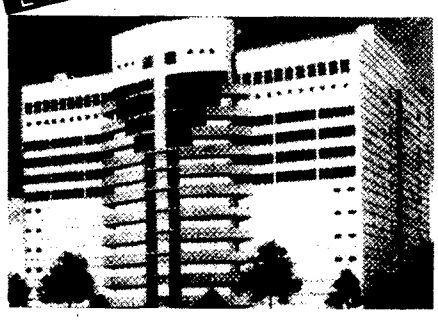
東大門 원단 부자재 상가를 잡아라!

국내 최초 최대, 최첨단
원단 부자재 전문 도매상가

마감입박

상가한개 총 8,500萬원중 3,000萬은 무담보 3년 동안 이자만 내는 조건으로 융자해 드리고 재임대 회사책임 알선 해드립니다(보3천 예정)

정부투자기관 한국감정원 산하
한국부동산신탁(주) 시행관리



◐월세 놓으실 경우◑
보증금 3,000만원에 월 100~150만원을 받으셔서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하시도록 회사에서 관리해 드립니다.

실투자금 3,500萬

◐투자 1년후 수익성◑
투자시 기존상가 이상 권리금 임대표 확실(기존 3-8억호가, 재임대 보증금 1억 월250만원)

본 상가는 정부투자 기관인 한국부동산 신탁에서 시행하기에 믿고 투자하셔도 안정합니다.
동대문 의류점포중 전국 최고 시세인 『아트프라자』 창시자의 동대문 신화 재창조!
상담 사업본부(02)263-3112 김용준 실장

지하 5층, 지상 13층, 연건평 18000평
최첨단 동시주차 1500여대
지하철 연결예정

시행자 한국감정원 출자 회사 한국 부동산 신탁(주) SAMWOO 삼우텍스프라자
시공자 벽산건설(주)

한 차원 높은 고객사랑

현대자동차는 국내정상의 국민, 비씨 카드사와 제휴,
카드사용실적에 따라 국내 최초로 무제한 적립,
신차구입시 환원해 드리는 현대자동차 카드를
선보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드리는 최상의 서비스-
현대자동차카드
한차원 높은 고객사랑의 실천입니다.



현대자동차 보너스카드

무제한 사용하면 할수록 현금을 적립해서 되돌려 받는 카드-
최근5년간 카드사용액의 0.8%를 무제한 적립,
현대자동차 신차 구입시 환원해 드립니다.
(현금서비스, 카드론, 각종수수료는 제외)

전차종 엑센트에서 다이너스티, 그레이스에서 대형특장차,
또한 곧 선보이게 될 현대 경승용차에 이르기까지-
전차종에 걸쳐 혜택을 받을 수있는 자동차카드는
현대자동차 카드뿐입니다.

즉시혜택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드리는 최상의 자동차 카드답게
폭넓은 서비스혜택을 지금 바로 누리실수 있습니다.

패밀리 가족의 사용실적이 적립되고, 가족 중 필요한 사람에게
환원되는 실용적인 혜택이 있습니다.(직계존비속, 배우자)

5% 한번고객은 평생고객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국내최다
직영 서비스망을 활용하여 고장수리시 수리비의 5%,
전담정비공장 이용시 공임의 5%를 할인해 드립니다.

국내·해외 국민, 비씨카드사와 제휴, 전국 30여개 금융기관과
연계된 국내 최대 카드서비스망을 이용, 산간벽지 및
국내는 물론 해외 어느 곳에서도 편리하게 최고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일뱅크 : 주유금액의 3% 할인(7월 1일 실시)
현대해상화재보험 : VIP상해보험가입시(10% 할인), 자동차·주택 및 가계자금 대출서비스, 대출이자 기산금리(년0.5%)면제, 보험가입시 Auto Guard서비스
현대성우리조트 : 객실할인(10~50%)및 시설물 이용시 20%할인
리바트 : 리바트가구 구입시 그룹사 직원가격적용, 6개월 무이자 혜택
호텔현대(경주) : 객실할인(20~30%-비캉스 제외)및 부대시설할인 (투숙시 30~50%)
다이아몬드호텔(울산) : 객실할인(20~30%), 사우나(50%할인), 수영장무료

■신청방법
-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써비스 전국영업소에 신청하십시오.
- 국민은행 각 지점 및 비씨 카드 가맹은행 본·지점에 신청하십시오.

■문의처
-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써비스 전국영업소
- 현대자동차 고객상담센터 (080-0237-800(수신자부담), 02-7207-800(일반전화))
- 국민카드 02-3700-5550/5560(자동문의)
- 비씨카드 02-520-4600

최고의 자동차회사가 드리는 최상의 카드
현대자동차카드
좋은 환경, 좋은 차
현대자동차

새로운 話題!

지금 정계, 경제계, 학계에서 서울신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21C 초일류 고급지

서울신문은 국민과 정부를 이어주는 가교입니다.

정부뉴스는 단순한 정책홍보가 아니라 곧바로 국민의 경제생활,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정보입니다. 가령 세제개편 같은 뉴스는 기업인은 물론, 우리 가정의 살림을 꾸려나가는데도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서울신문은 이렇게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정부정책 뉴스를 가장 빨리, 가장 깊이있게 전하는 신문입니다. 「정부시책 이렇습니다」, 「국정 어떻게 돼갑니까」, 「국무회의 중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입법예고」 등의 고정란을 보시면 서울신문이 국민과 정부를 이어주는 생활의 가교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서울신문은 질(質)로 경쟁하는 초일류 고급지입니다.

서울신문은 상업주의와 선정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서울신문은 이 사회의 중산층, 지식인, 오피니언리더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관심사를 심층 보도하는 초일류 고급지입니다. 兩是兩非가 아닌 一是一非의 명확한 논조, 1면의 통사설, 24면 중 2면이나 할애하는 주요인사 동정,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석학들의 깊이있는 논평… 그래서 서울신문은 「스크랩할 것이 많은 신문」, 「논평과 심층분석 기사가 많은 신문」, 「다른 신문을 보면서 더 깊이 더 자세히 내용을 알고 싶을 때 보는 신문」 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부수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영국의 「더 타임즈」, 프랑스의 「르몽드」 등 세계 초일류 고급지들은 발행부수가 100만부를 넘지 않습니다. 서울신문도 무가지나 홍보지 등으로 낭비적인 부수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구독료와 광고주들의 광고료만으로 운영되는 신문, 오피니언 리더들만을 독자로 하는 신문, 합리적이고도 과감한 경영혁신을 통해 흑자로 운영되는 신문, 그리하여 21세기 세계 초일류 고급신문, 이것이 바로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社